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3
연구보고 07-R13-2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 윤인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공동연구원 : 채정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선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 혜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 경 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동 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 한 순 (아주대학교) 최 진 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협력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 정 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김 의 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 동 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 태 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 영 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 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 광 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 영 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 가 영(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 지 배(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병 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 주 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 석 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 소 영(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 인 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문화센터 연구원) 임 현 숙(러시아 볼로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 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강 일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 재 식(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전문연구원) 길 은 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 기 형(세종대학교 교수)

연 구 요 약

2000년 미국 및 캐나다의 인구센서스 자료와 한인 청소년 7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 한인 동포 차세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는 타인종, 타민족 집단의 동일세대에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세대가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신분상승의 토대를 마련한 후에는 차세대는 그 토대를 디딤돌로 삼아 주류사회의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공과 직업선택에서 차세대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부모세대에 비교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추구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다. 그리고 이전에 한인들이 기피해 온 정치, 언론, 예술 분야 등으로도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차세대가 폭넓은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시민권자라는 인식, 영어능력과 미국사회문화에 대한 지식, 부모의 경제적 후원 하에 보다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동포 차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한인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국 방문, 유학 및 어학 연수, 이메일 또는 싸이월드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국과 가깝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청소년의 의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주의식이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주류사회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식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모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장기간 살거나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적다.

한인 청소년들은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

각하고 한국 정부가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단기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응답자의 53%가 인턴십 프로그램, 49%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43%가 단기 방문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포 차세대의 모국 방문과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를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민족 교육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모국어 구사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울판’이라고 하는 민족교육 및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다양한 수준과 지역의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김남희 외, 2005). 이 울판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인은(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영토 안과 밖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도 지속적인 연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도 울판에 버금가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 차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도 재외동포의 연령 및 방문 기간을 고려해서 하루 프로그램, 2~3일 프로그램, 1주일 프로그램, 1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재 및 교구, 시청각 자료, 지도용 지침서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포 차세대의 한국어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 무료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국외에서 한글교육과정이나 한국어 관련자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부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제공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일부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교육과정이 있으나, 재외동포 차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재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함께 앞으로는 정치, 언론,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동포 차세대 지도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을 육성하고 모국과 네트워크 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 포럼 활성화, 모국 유학 및 연수 기회 확대와 장학금 확충,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차세대 집회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차세대 조직 지원, 차세대 정치가의 민간 차원의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국의 관련된 정부 부처들(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재외동포재단 등)과 민간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한민족전자공동체의 형성은 정치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피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한인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국어, 한국 역사 및 민족문화 등을 교육할 수 있게 되어 동포 차세대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에서 개발한 코리아 넷(Korean.net)을 대폭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처해있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외동포 인적자원 풀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동포 차세대의 역량강화와 모국과의 연계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각 분야의 동포 차세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국과 네트워크 하여 이들의 활동영역을 광역화하며 국제화하는 한편, 이들의 선진문화, 학문이 국내의 동일분야에 전수되고 교류되어 국내의 사회문화, 학문과 예술분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자협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와 같이 지역별 조직뿐만 아니라 전 미주를 망라하는 중앙조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국과 네트워크하는 일이 필요하다.

동포 차세대 중 고숙련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하고 그런 것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장벽을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예로 동포 차세대가 군대 복무만이 아닌 다른 방식(방위 산업체, 공익근무, 영어 교사, 정보교육사)으로도 모국에 기여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입국과 취업과 관련한 비자 발급 행정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재외동포기본법 또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 교육 관련 정부 부처 내에 재외동포 차세대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국내 청소년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1. 코리안 아메리칸 차세대의 두 모습	3
2. 연구 목적	6
3. 연구 내용	7
1) 재외동포 차세대의 특성 및 의식 연구	7
2) 차세대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7
4.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와 활용방안	8
5. 세대 개념 정의	8
6. 자료 및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미국과 캐나다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분석	11
3) 재미동포 차세대와의 심층면접	12
4)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 청소년 인터넷 설문조사	12

II. 차세대 이론과 선행연구

1. 북미의 이민 차세대에 관한 선행연구	17
2. 북미의 한인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22

III. 차세대 이론과 선행연구

1. 인구학적 특성	29
1) 재미한인	30
2) 재캐나다 한인	33
2.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위	34
1) 교육수준	34
2) 언어사용	36
3) 직업 및 산업	39

4) 종사상의 지위	42
5) 소득과 빈곤	45

I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55
2. 종교생활	56
3. 가족 관계 및 가족 생활	60
4.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관계	69
5. 한인 정체성 및 한국문화 유지 수준	73
1) 이중정체성	73
2) 한인 정체성 수준	74
6.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	75

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심층면접 결과

1. 면접방법과 응답자 특성	81
2. 출생지와 성장지	85
1) 출생지	85
2) 성장지	86
3. 친구, 연애, 결혼, 부모-자녀관계	87
1) 친구관계	87
2) 이성교제 및 결혼	91
3) 부모-자녀관계	94
4. 언어사용	97
1)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의 여부	97
2)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여부	97
3)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의 연령	98
4) 본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98
5) 출생 순위	98
5. 1.5세 정체성	103
6. 민족정체성	105

1)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중정체성	105
2) 한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의 비교	106
3) 정주의식	108
4)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충돌	109
5)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110
6) 나비효과	112
7. 종교와 교회	114
1) 사회관계의 기반	114
2) 기독교에의 몰입	115
3) 기독교 신앙과 성공 지향성의 결합	116
8. 교육, 취업, 경력개발	117
9. 모국과의 관계와 모국에 건의사항	122
 VI. 결론 및 정책 제안	
1. 요약	129
2. 정책 제안	135
1) 모국 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개선	136
2) 모국 유학 기회의 확대	138
3) 차세대 지도자 육성	138
4) 차세대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화와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139
5) 폐쇄적인 국적제도의 개선을 통한 차세대 인력의 국내 활용	140
6) 인터넷 한민족공동체로서의 코리안 넷의 개선	141
7)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법률과 전담기구 신설 및 확대	141
 참고문헌	143

표 목차

<표 III-1> 북미 한인의 세대구분	30
<표 III-2> 재미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31
<표 III-3> 재미한인의 세대별 성별 분포	32
<표 III-4> 재미한인의 세대별 결혼상태	32
<표 III-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33
<표 III-6> 한인의 세대별 성별 분포	34
<표 III-7> 재미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35
<표 III-8>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35
<표 III-9> 재미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36
<표 III-10> 재미한인의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37
<표 III-11> 민족집단별 및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37
<표 III-12> 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38
<표 III-13> 한인의 세대별 현지어 구사능력 수준	39
<표 III-14> 재미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41
<표 III-1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42
<표 III-16> 재미한인의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43
<표 III-17> 민족집단별 및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44
<표 III-18> 미국의 인종·민족집단별 소득, 빈곤 수준, 1990-2000	45
<표 III-19> 민족집단별 1999년 평균 개인 총소득(\$)	47
<표 III-20> 재캐나다 한인의 평균개인소득(2000)	48
<표 III-21> 캐나다 아시안 민족집단별 평균개인소득	49
<표 IV-1> 종교 성향	56
<표 IV-2> 세대별 종교 성향 비교	57
<표 IV-3> 세대별 교회 출석 행태(기독교인에 한함)	58
<표 IV-4> 세대별 종교정체성과 인종정체성 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인식	59
<표 IV-5> 세대별 종교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의 비중	60

그림 목차

[그림 V-1]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111
-----------------------------------	-----

I. 서 론

1. 코리안 아메리칸 차세대의 두 모습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와 활용방안
5. 세대 개념 정의
6. 자료 및 연구방법

I. 서 론

1. 코리안 아메리칸 차세대의 두 모습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조승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병 경력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대량살상무기를 구입하고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난사한 지극히 미국적인 이 사건이 우리와 깊은 관련을 갖게 된 이유는 범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 1.5세라는 것이다. 조승희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을 이민을 가서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생활했다. 그의 부모는 미국에 이민 간 후 정착하기 위해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 대부분의 이민 1세가 그렇듯이 조승희의 부모 역시 언어 장벽 때문에 미국 회사에 취직할 수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모는 자녀가 사회심리적으로 부적응 증상을 보여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보는 미국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성장하고 미국식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지고 행동한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반면 한국인은 조승희를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승희의 죄에 대한 사죄로 정부 차원의 조문사절단으로 파견하려 하였고 주미대사는 32일간 순회단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언론은 초기에 이번 사건을 재미동포 1.5세의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이민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심지어 조기유학의 폐해로까지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의 문제를 이민 1.5세대와 이민자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오류이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성품과 의지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희가 경험한 이민 1.5세로서의 문화충격, 언어장벽, 인종차별, 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 이민자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 등의 조건들은 이민 2세나 또는 타인종·민족집단의 동년배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극복한 1.5세는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변인(marginal man)으로 남거나 심할 경우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조승희가 주변인으로서의 비극적인 인생 궤적을 보였다고 한다면 1.5세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적응유형으로 ‘주류인’(mainstream man)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뉴저지 주 에디슨 시장인 최준희이다. 그는 2005년 12월, 뉴저지 주의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총 인구의 60%, 유권자의 80%가 백인인 에디슨 시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시장 당선은 한인 2세들의 본격적인 정계 진출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준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육사 출신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영어능력 부족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세탁소를 경영하게 되었다. 부모는 하루에 15시간씩 2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와 그의 누나를 뒷바라지해서 아들은 매사추세츠 공대에, 딸은 스탠포드 대학에 보냈다.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던 그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했으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콜롬비아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2000년 빌 브래들리 민주당 전 상원의원의 대선출마 운동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2000년부터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운동협회(KALCA)를 조직해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일해 왔다. 2005년 12월 그의 에디슨시 시장 당선은 충실하게 다져온 그와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의 결실인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민 1.5세대는 실로 다양한 생애

과정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인 이민 1세는 이민자로서의 불리함과 인종차별로 인해 자신의 인적자본과 직업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응을 시도하고 주류사회와의 접촉과 교류가 제한된 채 주로 한인 교회와 한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식의 ‘점착성 적응’(adhesive adaptation) (Hurh and Kim, 1984)과 ‘분절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양식을 보인다(Rumbaut, 1994; Portes, 1996; Zhou, 1997). 하지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혈통적, 문화적 유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모국에 대해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민 1.5세와 2세는 부모가 이룩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딛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지위를 획득하고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대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또한 타인종·민족과의 혼인이 늘어나고 한국어 능력을 상실하고 주거면에서도 백인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백인주류문화로의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 1.5세와 2세와 같은 차세대 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과 민족정체성 유지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일 세대 내에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인진, 2005). 아동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모국과 모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사회화를 받은 차세대는 이후 성장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한인 친구들과 교제하고, 한국 방문까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모국과 모국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방식으로 사회화된 차세대는 이후 성장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백인 친구들과 하고만 교제하고, 한국은 물론 한인 이민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결국 이들은 겉으로는 한인이지만 속으로는 백인인 소위 ‘바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의 성장과정에서 가족과 한인 공동체, 나아가 모국이 어떻게 관여하고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북미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글

로벌 한민족공동체의 인적자원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목적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동포사회는 세대교체, 거주국 사회문화로의 동화 현상으로 인해 민족 정체성 변화 혹은 약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5세, 2~3세로 구성된 차세대 동포는 국제결혼, 민족공동체로부터의 이탈 정도가 커서 모국과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현재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차세대가 모국에 대한 애착과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윤인진, 2004).

하지만, 북미 한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이민 1세대 성인에 치중하고 있고, 재외동포정책도 기성세대의 현지 거주국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동포 차세대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1.5세대, 2~3세대와 같은 차세대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거주국의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모국에 대한 애착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7년에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주류사회 진출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대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들은 미국과 캐나다 동포 차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북미의 동포 차세대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북미동포의 수가 타 지역 동포의 수보다 크고, 둘째, 미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셋째, 북미동포 차세대가 전국적인 조

직을 갖추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주류사회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들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인을 포함한 각 인종·민족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높고 내용적으로 건실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1) 재외동포 차세대의 특성 및 의식 연구

- (1) 차세대(1.5세와 2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동포 1세와 타인종·타민족 집단(예를 들어,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히스패닉 등)의 동일세대와 비교한다.
- (2)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위를 동포 1세와 타인종·타민족 집단의 동일세대와 비교한다.
- (3)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조사한다.
- (4) 차세대의 민족문화, 전통언어(heritage language), 민족정체성 유지의 수준을 조사한다.
- (5) 차세대의 동포사회 참여 수준과 방식을 조사한다.
- (6) 차세대의 모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모국 방문 및 취업 경험을 조사한다.

2) 차세대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가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한다. 차세대가 모국을 방문하고 모

국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4.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와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들의 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역사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5. 세대 개념 정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세대구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 이민한 사람을 가리킨다. 1세대 중에는 한국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미국시민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족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강한 자아정체성과 한국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세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미국시민이 되고 어린시기부터 미국의 사회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강하다. 1.5세는 1세대와 2세대의 중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출생한 후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을 가

리킨다. 한인 1.5세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성장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과 한국과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중문화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1세 및 2세와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집단 의식을 갖고 있다(Danico, 2004). 이로 인해 1.5세는 1.5세끼리, 2세는 2세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두 세대는 상대방에게는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끼지만 자기들끼리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껴서 같은 세대끼리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의식이 1.5세끼리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된다(윤인진, 2005).

1.5세는 1세와 2세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생활과 의식에서 1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2세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다. 1.5세를 1세와 구분하는 연령기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1.5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한 허원무(Hurh, 1980)는 11세부터 16세 사이에 이민을 온 사람을 1.5세로 간주한다. 이 연령집단은 한국에서 중학교(미국에서 7~8학년에 해당)를 졸업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허원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령대에서 어린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영어로 순탄하게 전환한다. 언어동화와 함께 사회문화적 동화와 심리 및 정체성 발달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어린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사회화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양가감정(ambivalence)을 갖게 된다. 그런 감정은 주변인 인성(marginal personality) 또는 세계주의 인성(cosmopolitan personality)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허원무는 사춘기의 이민,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1.5세를 구별하는 주요 특성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Kim(2001)은 미국 뉴욕지역의 여러 이민자 집단의 2세들을 연구한 몰렌코프(Mollenkopf et al., 1997)의 기준을 따라 12세를 기점으로 잡아 12세 또는 그 이전에 이민을 온 사람들을 1.5세로 정의하였다. 이 연령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온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연령대에서는 언어능력과 자아형성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중언어능력과 이중문화 특성이 자연스럽게 획득되기 쉽다. 그러나 김대영의 세대 정의를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 후 6개월 만에 미국에 온 사람이나 12살이 되어 온 사람

이 모두 1.5세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한국에서 출생 후 1년 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유의미한 사회화과정을 겪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이나 태도에 있어서 1.5세 보다는 2세에 가깝다.

이중언어나 이중문화가 1.5세에 있어서 본질적인 조건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의 양쪽 모두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5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중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세를 한국에서 태어나고 7세에서 18세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로 정의했다.¹⁾ 같은 방식으로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9세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며,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연령이 6세 이전에 이민 간 사람들로 간주했다.

6. 자료 및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재외동포와 미국의 타인종·민족집단의 차세대에 관한 선행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여 차세대에 관한 기초 정보를 얻고 그것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차세대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시안과 히스패닉 2세들의 인구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민자와 이민자 공동체 연구의 중심이 이민 1세에서 2세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Portes와 Rumbaut의 히스패닉 2세에 대한 연구를 손꼽을 수 있다(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 아시안 이민 2세에 대한 연구로는 Fugita와 O'Brien의 일본계 2세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Fugita and O'Brien, 1991). 1970년 이후의 최근 아시안 이민자 2세에 관한 연

1)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발간하는 Future of Children 저널은 1995년 5집에서 아동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해 특집기사로 다뤘다. 여기서 저자들은 아동 이민자(immigrant children)의 연령 범위를 신생아에서 18세까지로 한정하였다(Board on Children and Families Commission, 1995).

구로는 Zhou 와 Bankston III(1998), Min(2002), Kibria(2003), Shavarini(2004), Lee 와 Zhou(2004)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 외에도 Jacoby(2004)의 연구는 신이민자들 2세의 동화와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직 북미동포 1.5세와 2세에 관한 연구물은 부족한 편이나 Diaco(2004), Kim(2001), Chang(2003/4), Lee 와 Zhou(2004), Chung(2007) 등의 연구들을 통해 재미한인차세대의 상황과 의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2) 미국과 캐나다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작성된 객관적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와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 통계와 센서스 5% 표본자료(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를 활용하여 한인 1.5세, 2~3세 등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동년배의 다른 아시아계 집단들과 비교하였다.

PUMS자료는 미국의 전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며, 자료의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통계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한인과 같은 소수 집단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²⁾ PUMS자료는 원 자료(raw data) 수준으로 자료가 공개되는 성격을 가진다. 표로 만들어 제시된 자료의 경우에는 제시된 내용밖에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표본자료를 활용하면 이것은 개인수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새로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PUMS는 출생지, 이민연도, 이민 당시 연령 등의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한인과 같은 이민자 집단의 세대구분을 할 수 있다. 기존의 1.5세와 2세에 관한 연구가 소규모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한

2) 유의영 교수는 2000년 PUMS를 사용해서 재미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Yu, et al., 2002).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PUMS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제공된 예비 PUMS 소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인과 백인의 표본 크기가 각각 956명과 242,780명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낮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PUMS를 사용하여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집단의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고 정교한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1.5세와 2세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PUMS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자료는 거주 지역, 성, 연령, 교육 수준, 직업과 산업 분야, 소득 수준, 족내혼 여부, 사회 진출 분야이다. 북미동포 차세대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을 동포 1세대와 타인종·민족집단의 동일세대와 비교하였다.

3) 재미동포 차세대와의 심층면접

재미동포 차세대의 의식 및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자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어바나-샴페인에서 27명의 동포 1.5세와 2세들과 2005년 1~2월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2세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현지인들의 소개로 면접하게 되었고, 구조화된 인터뷰 스케줄에 따라 1시간가량 면접을 하였다. 면접 내용은 응답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후에 녹취하였다. 각 응답자와의 면접이 끝난 후 면접 내용을 기록한 메모 수준의 노트를 완전한 문장으로 풀어 정리하고, 녹취문과 대조하여 빠지거나 잘못 기록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후의 면접에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모든 응답자에 대한 면접 노트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후에는 코딩 절차를 거쳐 핵심적인 개념들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에 따라 면접 기록을 재배치하여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런 질적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스트라우스(Strauss, 1987)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절차를 따랐다.

4)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 청소년 인터넷 설문조사

한인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인 www.Surveymonkey.com에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총 821명이 참여하였는데, 불충

분한 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769개의 유효 사례수를 갖고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워싱턴 디씨, 어버나 샴페인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연락처를 남긴 응답자들에게는 15불의 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원래는 확률표본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률표집에 필요한 표집 틀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중앙일보, 한인 교회, 한인 학생회, 한인 SAT 학원 등을 통해 표집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조사의 결과를 복미 한인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색적인 차원에서 한인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 한인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의식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청소년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한인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중 여성이 56.6%로 남성보다 약간 많았다. 자신을 1.5세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61.3%, 2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22.2%로 1세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11.7%)보다 많았다. 1.5세의 비율이 높아서 한국에서 출생한 응답자들이 72.2%로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들(27.1%)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어린 나이에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한 1.5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Ⅱ. 차세대 이론과 선행연구

1. 북미의 이민 차세대에 관한 선행연구
2. 북미의 한인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II. 차세대 이론과 선행연구

1. 북미의 이민 차세대에 관한 선행연구

이민자 자녀세대에 관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이민자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교육이 미치는 역할을 연구하는 부류와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동화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연구하는 부류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교육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인종·민족집단들 간의 교육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런 집단차이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슈미드(Schmid, 2001)는 집단 간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외재적 요인에는 경제적 기회, 인종 및 민족지위, 특정 집단에 대한 거주국 사회의 수용도 등이 있고, 내재적 요인에는 이민자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 가족구조, 공동체 조직, 문화언어적 유형 등이 있다. 카오와 티엔다(Kao and Tienda, 1995)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집단들 사이의 교육적 격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990년에 15세에서 17세의 연령구간의 이민자 자녀 중 남미계 이민자 자녀의 74%가 학교에 재학 중인 반면 비남미계 이민자 자녀의 95%가 재학 중이었다. 학업 성취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아시아계 학생들은 남미계 학생들(특히 멕시코계 학생들)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학업 성취도와 학교 재적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졸업 후 경제적 성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Zeng, 2004)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이민 시기와 소득변화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이민 초기에는 낮은 소득을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미국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인과 유사한 소득변화 경로를 보이지만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초기의 낮은 임금수준에서 이후 급속하게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아시아계 이민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교육과 노동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시아인들은 모범적 소수민족(model minority)으로 칭송받아왔다. 이들은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의 주류사회문화에 도전하기보다는 동화함으로써 높은 교육수준, 직업지위, 사회적 인정을 획득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아시아인들의 성공은 백인 지배의 사회체제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흑인, 푸에르토리코인과 같은 미국의 하층계급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인종들로 하여금 체제를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아시아인들처럼 성공하라는 본보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은 아무리 주류사회에 동화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유리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sia, 1988;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92). 또한 아시아인들은 백인과 동일한 교육연수를 갖더라도 임금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Wong, 1982; Kim and Hurh, 1983).

미국 주류사회로 진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Asian Americans)의 실태를 연구한 김과 루이스(Kim and Lewis, 1994)에 따르면 공직에 진출한 아시아계는 교육수준, 임금, 직위 등에서 백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위공무원 또는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소수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직에 진출하지만 이곳에서도 고위직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는 유리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동화하는 정도와 그의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들의 이론적 틀로서 많이 사용된 것이 동화론(assimilation theory), 분절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 민족 엔클레이브 이론(ethnic enclave theory) 등이다.

미국적 배경에서 개발된 동화론은 인종·민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민자와 소수민족들이 미국 주

류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백인-앵글로-색슨-개신교도들의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생활양식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민자들의 모국에서 가져온 전통가치, 관습, 제도들은 후진적이고 주류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주류사회에서 수용과 신분상승을 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으로 인식된다(Park, 1950).

분절동화론은 포르테스(Portes, 1996), 럼바우트(Rumbaut, 1994), 조(Zhou, 1997) 등의 학자들이 이민자와 그 후손이 현지사회에서 적응하는 방식에는 동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선적인 동화(straight-line assimilation)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필리핀, 인도 출신의 이민자들과 같이 고학력의 중산층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에 주류사회의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반면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저학력의 하층배경의 이민자들과 같이 현지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민자 집단들은 주류사회로의 일방적인 동화를 지양하는 대신 자신들의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족성원간의 유대와 연결망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을 꾀한다고 한다. 이들 학자들은 베트남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난민 자녀들이 언어장애, 생활난, 편견과 같은 악조건하에서도 본토인들에 비교해서 학업성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고 일탈 및 범죄율이 낮은 것은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부모의 기대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주류사회로의 성급한 동화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한다.

민족 엔클레이브 이론은 같은 민족성원들이 도시의 한 지역에 집중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주류 노동시장에서 얻지 못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 이론을 처음 개발한 포르테스(Portes and Bach, 1985)는 민족 엔클레이브의 조건으로 동족 성원들의 지리적 집중,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민족 기업가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민족 노동자들의 결합을 들었다. 워브너(Werbner, 2001)는 민족 엔클레이브를 동족 성원과 기업가들의 공간적 집중에 한정하기보다는 엔클레이브 내

에서 동족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간의 네트워크로 보았다. 그래서 사람, 재화, 네트워크가 특정 공간에서 연계될 때 엔클레이브 경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엔클레이브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엔클레이브에서 주류노동시장에서 얻지 못하는 소득, 고용 안정성, 고위 경영직, 관리직으로의 승진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지 적응에 중요한 요인 중에서 특히, 언어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포르테스와 쇼플러(Portes and Schauffler, 1996)의 연구에 의하면, 남플로리다(South Florida)의 이민 2세대의 경우 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학업성취의 정도가 달랐다. 즉, 영어가 유창할수록 학업성취의 정도가 높았으며, 유창하지 않을수록 그 정도가 낮았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이민 2세대의 69.6%가 영어의 유창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유창한 정도는 ‘전혀 못한다 혹은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상당히 높은 비율(36%)을 차지했다. 또한 이민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모국어 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보면 81%가 영어 사용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영어 사용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것인가? 젠센과 치토스(Jensen and Chitose)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 2세대의 66%는 가정에서 영어보다는 모국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이민을 왔거나 1.5세대인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집안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민 2세대 청소년 중 14%만이 영어를 전혀 혹은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민 2세대의 대부분은 영어와 모국어 모두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언어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정체감의 일종인 민족 정체감은 이민자들 특히, 이민 1.5세대 2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럼바우트(Rumbaut, 1994)에 따르면, 민족 정체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일수록 원래 가지고 있는 정체감에 새로운 주

류 사회의 정체감이 부가될 수 있는 형태의(additive and hyphenated) 정체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남성일수록 그 반대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럼바우트는 사회화 과정이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일수록 미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어가 더 유창하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민 2세대일수록, 그리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더욱 선호할수록 그들의 본국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라틴 아메리칸보다는 아시아인들의 부모의 국적이 이민 2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의 인식의 정도가 미국 이민 2세대의 민족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이 스스로 미국에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수록 미국인이라는 인식이 낮았으며,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인종 때문에 차별받았다고(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미국의 주류로 편입하려는 경향이 낮았다.

역시, 럼바우트에 따르면, 가정환경에 의해 미국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 형성되는데, 이민 2세대의 심리적 미국인으로서의 동화는 부모의 민족적 사회화, 사회적 지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2세대의 민족적 정체성은 그들의 부모(특히 그들의 어머니의)의 민족적 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모국의 민족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사회경제적 적응 양식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형화를 제안한다. 즉, 한국, 중국, 일본 이민자들의 모델 마이노리티형(model minority type),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난민 유형(refugee type), 인도 및 파키스탄 이민자들의 전문가형(professional type), 필리핀 이민자들의 대중문화 동화형(popular culture assimilation type) 등이다. 한중일 동북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유교문화권을 토대로 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빠른 시일에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을 이룩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들은 전쟁의 외

상과 준비하지 못한 이민 등으로 인해 아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적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인과 파키스탄 출신의 이민자들은 영어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아 영어구사력이 뛰어나고 본국에서의 교육과 직업경력이 미국 및 캐나다에서 쉽게 전환되고, 이들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본국에서 중상류층에 속하고 정보통신 및 의료전문직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비교해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이민자들은 이민 1세대와 이민 2~4세간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 2~4세는 미국 대중문화에 동화되어 상향적 신분상승의 동기가 부족한 반면 이민 1세대는 의료전문직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빠른 시일에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집단에 비교해서 젊은 세대로 넘어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2. 북미의 한인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재미한인 차세대 동포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교육학분야에서 교육성취와 관련하여 민족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연구한 것이 있다. 김정근(2007)은 재미한인 학부모와 자녀의 민족교육관을 분석하였다. 재미한인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주류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민족의식을 유지하고 세대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용적인 목적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한글학교에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어와 현지어에 모두 능통하게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기를 기대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서정갑·이신행(1989)은 재미한인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규범의식을 주제로 세대 간의 갈등과 그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1.5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한인사회는 1세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차세대와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세대간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1.5세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제안하였다. 1.5세는 그 특징으로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 양 문화규범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으며, 1세에 비해 연고성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가져 전문성, 기능성, 실용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간에도 연대와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윤인진(1996; 2003)은 미국과 캐나다의 세대별 민족정체성과 애착 수준을 연구하였는데 두 지역 한인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세대별 차이가 현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민 1세에 비교해서 이민 2~3세들이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약했고, 다른 한인과의 교류의 정도와 족내혼과 모국어 사용과 같은 한민족의 가치와 관습을 인정하고 지키는 정도가 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민 2~3세의 경우에도 비록 이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민족의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강하게 갖고 있고, 사회적 관계도 대부분 한인 민족공동체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현지 사회로의 언어적, 문화적, 구조적 동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이민 2~3세들이 한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적 동일시와 애착을 갖는 주된 이유는 다인종·다민족사회에서 타민족들에 의해서 한인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구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민 2~3세들이 비록 현지 주류사회에 언어적, 문화적, 구조적으로 동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수준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민병갑과 김영옥(2007)은 한국계 2세의 교육성취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것에 주목하였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인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미국 내 대학 진학의 특징을 반영한다. 2006년 현재, 미국 대학의 55%는 여성이며, 백인 젊은 층(25~34세)의 경우 여성의 대졸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크게 발전한 성평등 의식도 한 몫 하지만 여성이 직장에서 남성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대학

이나 대학원을 나와야 바람직한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인 부모들이 과거의 남존여비 사상을 버리고 딸의 교육을 아들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2세 여성의 교육 수준이 2세 남성보다 높게 된 것이다.

민병갑과 김영옥은 유태인의 경우 3~4대에 가서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한인의 경우에는 2세 이후부터는 부모의 사업을 계승하지 않고 임금 근로자가 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주된 이유는 1세 부모들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더라도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진출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또한 1세가 경영하는 사업들이 주로 식품점, 청과상, 세탁업 등 낮은 지위의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문화에 동화된 2세들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미국에서 이민 1.5세와 2세들이 1988년을 기점으로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Yoon, 2007). 우선 경제적으로 자영업, 특히 소규모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일반노동시장에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활동분야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 예술, 학문분야로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로 인해 1.5세와 2세들은 타인종에 비교해서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그 결과 직업지위와 소득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신분상승과 함께 지리적 이동도 활발해지며 전통적인 코리아타운에서 대도시 인근의 근교로의 이주(suburban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적으로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가속화되어서 1.5세와 2세 중에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고 자신을 코리안-아메리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타인종, 특히 백인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인 인구 중 혼혈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재미한인사회의 추세는 미국 주류사회문화로의 동화가 빨라지는 대신 모국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윤인진, 2004).

그런데, 재미한인 차세대의 현지 적응과 성공에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자본(교육수준, 영어구사력 등), 세대, 동화 정도와 같은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민족 엔클레이브 존재 여부, 인종 및 민족 지위와 같은 외재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확대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국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한 외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의 언어 구사 능력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들 미국 이민 한인 2세대 청소년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말하는데 더 유창하며, 그들의 한국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더욱 편하게 느낀다. 즉, 그들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볼 때,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의 정도는 강하고, 문화 민족성의 애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민족성의 애착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두 번째로 친한 친구, 세 번째로 친한 친구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Korean’ 혹은 ‘Korean American’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 2세대 청소년들 중 성별에 따른 한국어 사용 빈도가 다를 수 있다.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어 사용의 정도가 높았으며, 조사 대상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인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민과 홍(Min and Hong, 2002)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대들이 미국이나 제3국에서 태어난 미국 이민 2세대들에 비해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미국 이민 2세대들의 한국어 사용 빈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일수록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소년 보다 한국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Min, 1998)은 뉴욕의 한인 이민자 가족 연구를 통해 그들 자녀의 민족적 정체성 발달 정도에 주목하였고, 그 요인 중 하나로 한인 교회를 들고 있

다. 즉, 많은 수의 한인 교회 내에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맞벌이 생활로 바쁜 대다수 이민 가정의 경우 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997년의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를 포함한 부모의 대다수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어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중 소수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2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1991년의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들의 많은 수가 자녀와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꺼려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한데, 그것은 한국 음악을 즐겨 듣고, 영화, 게임 등을 즐기기 때문이다.

유태인, 인도인들에게 종교와 민족성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인들에게서도 기독교와 민족성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작용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와 한국인의 민족성 사이의 연관성은 유태인과 인도인의 그것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in, 1998).

레베카 김(Kim, 2004)의 연구는 대학 내에서의 한인 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현재 UC 버클리, UCLA에만 해도 50여 개 이상의 복음주의 교회 그룹이 있고, 그들의 80%이상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다. 특히 미국 명문 대학들에서 그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며, 이들 중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장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흔히 알려져 온 종교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와 다른 것이며, 또한 전통적 동화 이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 1세대 민족 교회에 대한 불만족, 백인 주류 교단으로부터의 평가절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에 의한 요인은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내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같은 민족성원들간의 유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된다.

Ⅲ. 차세대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위

III. 차세대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1.5세와 2세 이상을 차세대로 보았다. 1.5세는 한국과 미국/캐나다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중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연령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7세에서 18세 사이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19세 이후에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며,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연령이 6세 이전에 이민 간 사람들로 간주했다. 그런데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민자의 입국 연도가 5년 단위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한 세대 구분을 정확히 따를 수 없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세대 구분은 1세는 20세 이후에 이민 간 사람, 1.5세는 5~19세 사이에 이민 간 사람, 2세는 캐나다에서 출생했거나 4세 이전에 이민 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한인의 세대분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북미 한인사회에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캐나다로 이민 간 1세와 1.5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III-1> 참조). 미국에서는 1세가 전체 한인의 49.6%, 1.5세가 15.1%, 2세(3세 이상 포함)가 35.3%를 차지한다. 캐나다에서는 1세가 전체 한인의 49.6%, 1.5세가 26.8%, 2세(3세 이상 포함)가 23.6%를 차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미 한인 인구를 1세와 2세의 이분법을 사용했는데, 두 세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1.5세의 비율이 15~27%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집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2세의 비율이 미국에서 35.3%, 캐나다에서 23.6%에 달하는 만큼 1.5세와 2세로 구성된 차세대 비율이 전체 한인 인구의 반에 해당할 만큼 세대교체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 북미 한인의 세대구분

세대	재미한인		재캐나다 한인	
	N	%	N	%
1세	24,391	49.6	1,139	49.6
1.5세	7,453	15.1	617	26.8
2세(3세 이상 포함)	17,365	35.3	542	23.6
전체	49,209	100.0	2,298	100.0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와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민족명에서 ‘한인(Korean only)’으로만 표기한 사람들만을 분석에 포함. 임시 거주자는 분석에서 제외.

1) 재미한인

1세는 나이가 들어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당연히 높다(<표 III-2> 참조). 1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청소년의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20대의 비율은 12.1%, 30~50대의 청장년층의 비율은 68%이다. 1.5세는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세보다는 연령이 낮지만 2세보다는 높다. 1.5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비율은 52.5%, 20대의 비율은 29.2%, 30~50대의 비율은 18.2%이다. 2세의 대부분은 아직 청소년기에 속한다. 2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인구비율은 73%에 달하고, 20대의 비율은 17%, 30~50대의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각 세대의 평균연령을 계산하면 1세는 45.3세, 1.5세는 19.7세, 2세는 15.2세로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세대별 연령구조는 각 세대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직업분포, 종사상의 지위,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세대별 연령구조를 감안해야 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 연령집단 간에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III-2> 재미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단위 : %)

연령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10세미만	11.9	0.0	16.7	38.9
10대	16.5	2.6	35.8	34.4
20대	16.8	12.1	29.2	17.0
30대	16.7	21.8	15.3	4.5
40대	16.4	27.2	2.5	1.7
50대	11.2	19.0	0.4	1.2
60세 이상	10.4	17.3	0.1	2.3
평균연령	33.4(19.5)	45.3(14.8)	19.7(10.3)	15.2(13.8)
N	49,209	28,172	10,444	10,593

자료: <표 3-1>과 동일

주: 평균연령의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세대별로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1세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17.6% 포인트 높아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80.5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진다(<표 III-3> 참조). 1.5세에서는 성비가 90.1%로 다소 균형 있게 되고 2세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아지게 된다. 1세에서 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민을 더 많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한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종 및 민족집단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20~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자들이 자기개발의 기회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민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인진, 2004: 234).

<표 III-3> 재미한인의 세대별 성별 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남자	44.6	41.2	47.4	50.7
여자	55.4	58.8	52.6	49.3
성비	80.5	70.2	90.1	102.9
N	49,209	28,172	10,444	10,593

자료: <표 3-1>과 동일

주: 성비 =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

2000년 인구센서스에는 338,196개의 한인 가구가 보고되었다. 한인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77명인데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인 2.59명에 비교해서 약간 큰 값이다. 한인 가족은 214,054개이고 평균가족원수는 3.30명으로 미국 전체 평균인 3.14명보다 약간 크다. 한인 가구와 가족이 미국 평균보다 큰 이유는 한인 가족이 기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안정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세대별 연령구조의 차이로 인해 결혼 상태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표 III-4> 참조). 1세 중에서 기혼자의 비율은 72.9%인데 비해 1.5세와 2세의 기혼자 비율은 각각 18.6%와 9.3%이다. 반대로 미혼자의 비율은 1세 중에서 14.6%인데 비해 1.5세와 2세에서는 각각 79.3%와 88.7%이다.

<표 III-4> 재미한인의 세대별 결혼상태

(단위 : %)

결혼상태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기혼	47.7	72.9	18.6	9.3
미망	3.4	5.7	0.1	0.6
이혼	3.6	5.4	1.6	1.0
별거	1.0	1.4	0.5	0.4
미혼	44.3	14.6	79.3	88.7
N	49,209	28,172	10,444	10,593

자료: <표 3-1>과 동일

2) 재캐나다 한인

캐나다의 한인의 경우에서도 1세는 나이가 들어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당연히 높다(<표 III-5> 참조). 1세 중에서 20대의 비율은 4.7%, 30~50대의 청장년층의 비율은 76.3%이다. 1.5세는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세보다는 연령이 낮지만 2세보다는 높다. 1.5세 중에서 10대의 비율은 44.4%, 20대의 비율은 28.8%, 30~50대의 비율은 12.9%이다. 2세의 대부분은 아직 청소년기에 속한다. 2세 중에서 10대 미만의 비율은 36.9%, 10대의 비율은 28.2%, 20대의 비율은 28%, 30~50대의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각 세대의 평균연령을 계산하면 1세는 48.7세, 1.5세는 20.8세, 2세는 15세로 큰 차이가 난다.

<표 III-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연령 분포(%)

연령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10세 미만	11.1	-	8.8	36.9
10대	18.6	-	44.4	28.2
20대	16.7	4.7	28.8	28.0
30대	14.4	19.8	12.5	5.4
40대	17.6	32.4	5.0	0.7
50대	12.1	24.1	0.3	0.2
60세 이상	9.6	19.0	0.2	0.6
평균연령	33.2(19.4)	48.7(13.2)	20.8(9.7)	15.0(10.9)
N	2,298	1,139	617	542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평균연령의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세대별로 성별 분포를 비교하면 1세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11.4% 포인트 높아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79.7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진다(<표 III-6> 참조). 1.5세에서는 성비가 109.9로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아지고, 2세에서는 93.6으로 다시 여자가 많아지지만 1세에 비교해서 성비가 균형을 잡아간다.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 한인 인구의 51.7%가 여자로 조사되어 여초현상이 나타났다. 캐나다 전체 인구의 50.9%가 여자인

점에 비교할 때 한인의 여초현상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 한인의 세대별 성별 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남자	47.4	44.3	52.4	48.3
여자	52.6	55.7	47.6	51.7
성비	90.2	79.7	109.9	93.6
N	2,298	1,139	617	542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성비 =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

2.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위

1) 교육수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수준이다. 세대별로 북미한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5세와 2세의 학력 수준이 1세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재미한인의 경우 25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원 교육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1.5세에서 6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세에서 55.7%, 1세에서 40.7%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재캐나다 한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원 교육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1.5세에서 6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세에서 49.4%, 2세에서 46.5%로 나타났다(<표 III-8> 참조). 아직 1.5세와 2세의 대부분이 10~20대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육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미 한인 차세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에 힘입어 전문직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주류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지역의 23~35세의 1.5세와 2세를 조사한 김대영의 연구(Kim, 2001: 58)는 성인이 된 1.5세와 2세의 교육수준에 대해 보고한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1.5세와 2세의 교육수준은 1세의 교육수준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5명의 표본 중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비율은 55%였고,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들의 비율은 33%였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인 1.5세와 2세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되면 이들의 교육수준은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세대 간 신분상승을 꾀하는 많은 수의 1세 부모로 인해 1.5세와 2세 자녀들의 교육수준은 다른 인종 및 민족집단에 비교해서 높을 것이다. 이런 고등교육수준은 1.5세와 2세의 전문직화와 주류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표 III-7〉 재미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고졸이하	13.9	15.6	3.0	8.2
고졸	21.4	23.6	8.3	13.9
4년대졸 이하	21.0	20.1	26.9	22.2
4년대졸	29.3	27.6	41.5	32.2
대학원(석박사)	14.5	13.1	20.3	23.5
N	31,429	26,299	3,473	1,657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표 III-8〉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교육수준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고졸이하	13.4	5.2	5.9	11.9
고졸	24.1	26.7	14.9	23.7
4년대졸 이하	17.8	18.6	16.8	17.8
4년대졸	30.3	38.4	44.6	32.3
대학원(석박사)	14.4	11.0	17.8	14.2
N	1,398	1,125	172	101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2) 언어사용

일반적으로 언어는 민족성(ethnicity)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민족집단의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민족어(ethnic language) 또는 전통어(heritage language)를 통해 한 민족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차세대가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언어는 이민자에게 있어 중요한 인적자원 중의 하나이며 영어구사능력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또는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류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반면 못하는 사람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민족경제에 고용인으로 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따라서 영어구사능력은 직업 및 산업, 종사상의 지위,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세대별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하면 1세의 94.2%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1.5세의 58.9%, 2세의 69.1%가 한국어를 사용한다(<표 III-9> 참조). 반면, 1세의 5.8%만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1.5세의 41.1%, 2세의 30.9%가 영어를 사용한다.

<표 III-9> 재미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단위 :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국어	82.2	94.2	58.9	69.1
영어	17.8	5.8	41.1	30.9
N	46,504	28,172	9,795	8,537

영어구사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한인들의 영어구사능력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다. 1세 중에서 영어가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61.4%에 달하고 1.5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 출생한 2세 중에도 영어

가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15~23%에 달한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재미한인의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단위 : %)

영어구사력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능숙	55.8	38.6	77.1	84.8
미숙	44.2	61.4	22.9	15.2
N	26,464	15,742	5,270	5,452

자료: <표 3-1>과 동일

주: ‘능숙’ = ‘Speak English very well or well’

‘미숙’ = ‘Speak English not well or not at all’

한인 1.5세와 2세의 영어구사능력을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11> 참조). 인도인에 비교하면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지만 중국인과 베트남인과 비교하면 영어구사능력이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인 1.5세와 2세가 미국 주류사회로 진입하는데 영어로 인해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1> 민족집단별 및 세대별 영어구사능력 수준

(단위 : %)

영어구사력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인도인				
능숙	78.9	76.2	84.2	87.7
미숙	21.1	23.8	15.8	12.3
N	49,294	36,084	6,028	7,182
중국인				
영어능숙	58.9	47.4	71.2	79.4
영어미숙	41.1	52.6	28.8	20.6
N	60,125	35,943	10,127	14,055
일본인				
영어능숙	54.7	45.1	68.1	70.8
영어미숙	45.3	54.9	31.9	29.2
N	13,381	8,263	1,102	4,016
베트남인				
영어능숙	49.3	33.2	61.7	73.1
영어미숙	50.7	66.8	38.3	26.9
N	29,736	15,566	7,669	6,501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89%는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공용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82%, 불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1%, 영어와 불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6%로 나타나서 한인들은 캐나다의 여타 소수민족집단처럼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용능력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한인들은 가정에서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67%, 영어 또는 불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3%를 차지해서 총 70%가 여전히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의 한인들이 직장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고 3%는 영어 또는 불어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혀 직장 내에서 한국어 사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표본자료를 사용해서 세대별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하면 1세의 87.1%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1.5세의 77.5%, 2세의 29.5%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12> 참조). 반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1세가 12.9%, 1.5세가 22.5%, 2세가 70.5%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언어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한인의 세대별 언어 사용 패턴

(단위 :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국어	70.9	87.1	77.5	29.5
현지어	29.1	12.9	22.5	70.5
N	2,298	1,139	617	542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한인들의 현지어구사능력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한인 인구 중 현지어구사능력이 미숙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13.3%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인구센서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한인들의 비율인 11%와 근접한 것이다(<표 III-13> 참조). 역시 세대별로 현지어 구사능력수준에는 차이가 있어서 1세 중에서 미숙한 수준인 사람들이 18.2%, 1.5세에서는 10.1%, 2세에서는 0.5%로 나타났다.

<표 III-13> 한인의 세대별 현지어 구사능력 수준

(단위 : %)

영어구사력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매우 능숙	31.1	13.2	34.3	90.4
능숙	55.5	68.6	55.6	9.1
미숙	13.3	18.2	10.1	0.5
N	1,237	742	286	209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언어구사능력(HLNP)은 가정과 직장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가를 구분하여 두 곳에서 모두 현지어를 사용하면 현지어구사능력을 ‘매우 능숙’으로, 가정 혹은 직장 중 한곳에서만 사용하면 ‘능숙’으로,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미숙’으로 척도화 하였음.

한인의 현지어 구사능력수준을 타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중국인보다는 높지만 일본인, 인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면관계로 민족집단별 현지어구사능력수준에 관한 표는 생략). 특히 1세와 1.5세의 현지어구사능력은 타 민족집단의 동일세대에 비교해서 낮았다. 그러나 2세는 타 민족집단의 2세와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1세와 1.5세는 현지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2세의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직업 및 산업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직업이다. 이민 1세대에 비교해서 1.5세와 2세의 직업이 어떻게 다른 가를 조사함으로써

세대 간 신분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 재미한인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분포에서 한인들은 미국 전체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관리직과 전문직에 더욱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한인 직업분포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8.7%로 높은 반면 농림어업, 건설설비, 운송, 군인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0.2~4%로 낮다(표 3-14 참조). 생산, 교통, 물류 운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은 12.2%로 전체 미국인 비율인 14.6%에 비교하면 낮다.

세대별 직업분포의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등 저숙련 분야에서는 1세의 종사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관리직, 관리지원 및 사무직 등의 고숙련 분야에서는 1.5세와 2세의 종사 비율이 높다. 이런 결과는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가면서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산업분포는 세대별 직업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인들의 전반적인 산업분포의 특징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 산업에 비교해서 높다. 세대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에서 1세의 종사비율이 1.5세와 2세에 비교해서 높았고, 통신업, 각종 전문직 서비스업에서는 1.5세와 2세의 종사비율이 1세에 비교해서 높았다.

〈표 III-14〉 재미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전문관리직	36.3	32.9	43.4	40.2
서비스직	15.7	16.9	12.0	15.3
판매직	19.4	20.4	19.4	16.6
관리지원 및 사무직	11.7	8.5	14.7	18.5
농림어업직	0.2	0.2	0.2	0.2
건설설비직	4.0	4.7	3.2	2.5
생산직	10.0	13.8	4.7	3.3
운송직	2.3	2.4	1.8	2.6
군인 및 기타	0.3	0.1	0.6	0.7
N	28,851	17,622	5,053	6,176

자료: 2000년 미국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동일 세대의 직업분포를 미국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한인 1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동일 세대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에 비교해서 낮고 유일하게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높다. 하지만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분포를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히 전문관리직 종사비율은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에 비교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한인 1.5세와 2세의 전문직화도 다른 성공적인 아시안 집단에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캐나다 한인

재캐나다 한인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재미한인에 비교해서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25세 이상의 취업 인구 중 56.2%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세대별로 직업분포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문관리직의 비율은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표 III-15〉 참조).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생산직의 비율은 1세에 비교해서 1.5세와 2세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재미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캐나다 한인에

서도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직업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I-15〉 재캐나다 한인의 세대별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전문관리직	56.2	55.3	55.4	64.5
서비스 및 판매직	29.3	30.7	29.7	17.2
관리지원 및 사무직	8.5	7.1	10.8	16.1
생산직	6.0	6.9	4.1	2.2
N	977	736	148	93

자료: 2001년 캐나다센서스 5% 표본자료.

주: 연령이 25세 이상 자만 분석.

동일 세대의 직업분포를 캐나다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과 비교하면 한인 1세, 1.5세, 2세 모두의 전문관리직 비율이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에 비교해서 높았다. 예를 들어, 한인 1세, 1.5세, 2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이 55.3%, 55.4%와 64.5%인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인도인 1세, 1.5세, 2세의 전문관리직 비율은 32.6%, 37.7%, 54.4%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인 차세대의 전문직화는 캐나다의 다른 아시안 집단들에 비교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북미 한인 1.5세와 2세는 1세에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한인 민족경제와 공동체로부터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4) 종사상의 지위

재미한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갖는 통념중의 하나는 대부분이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 III-16>은 이런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더욱 많은 한인들이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업체의 고

용인으로 일하는 비율은 1세에서 64.7%, 1.5세에서 79.7%, 2세에서 79.4%로 1.5세와 2세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세대별 차이는 첫째, 비법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의 고용주로 일하는, 소위 자영업자의 비율은 1세에서 높게 나타나고 1.5세와 2세로 옮겨갈수록 낮게 나타난다. 둘째, 공공직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비율은 1세보다는 1.5세와 2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이민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1세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언어와 미국사회문화에 익숙한 1.5세와 2세는 사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II-16〉 재미한인의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직업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사기업고용인	69.1	64.7	79.7	79.4
공공직고용인	9.9	8.5	12.6	14.3
비법인사업체 고용주	12.8	16.5	4.0	3.5
법인사업체 고용주	6.6	8.5	2.4	1.2
무급종사자	1.7	1.8	1.3	1.6
N	28,851	20,383	5,416	3,052

김대영의 뉴욕지역 1.5세와 2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부모의 43%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자녀세대는 불과 11%만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주류노동시장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는 비율은 40%인데 반해 자녀세대는 76%가 주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1세가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쌓고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자녀들이 주류노동시장의 전문직, 관리직으로 진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인 1.5세와 2세의 종사상의 지위를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역시 1세에 비교해서 1.5세와 2세

의 자영업 참여율은 낮은 대신 공공직 종사 비율은 높다. 특히 일본인 2세의 공공직 고용인의 비율은 23.8%로 아시안 민족집단 중에서 가장 높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민족집단별 및 세대별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종사상지위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인도인				
사기업고용인	79.1	78.2	84.2	82.5
공공직고용인	11.0	10.8	10.3	12.7
비법인가용주	4.6	5.1	2.3	2.6
법인가용주	4.7	5.4	2.5	1.5
무급종사자	0.5	0.5	0.7	0.7
N	45,156	36,642	4,066	4,448
중국인				
사기업고용인	76.6	76.9	78.7	73.7
공공직고용인	12.9	11.5	14.0	18.0
비법인가용주	5.7	6.2	3.4	5.3
법인가용주	4.0	4.6	2.9	2.4
무급종사자	0.8	0.8	1.1	0.6
N	65,069	45,908	7,654	11,507
일본인				
사기업고용인	77.0	77.3	77.1	65.2
공공직고용인	18.5	9.7	14.9	23.8
비법인가용주	7.7	8.7	5.6	7.3
법인가용주	3.4	3.9	1.8	3.2
무급종사자	0.5	0.5	0.6	0.5
N	23,511	8,157	1,148	14,206
베트남인				
사기업고용인	81.1	80.6	81.6	85.3
공공직고용인	8.8	8.0	11.8	10.3
비법인가용주	6.5	7.4	4.0	3.0
법인가용주	2.9	3.4	1.7	0.6
무급종사자	0.7	0.6	0.9	0.8
N	30,529	23,220	5,385	1,924

5) 소득과 빈곤

(1) 재미한인

취업과 직업지위에서는 대체로 양호하나 소득과 빈곤률³⁾에서의 한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더욱 높은 비율의 한인들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1990년에 한인의 연평균 가족소득(\$33,909)은 미국 전체 인구의 가족소득(\$35,225)과 백인의 가족소득(\$37,152)에 비교해서 낮았고 한인의 가족소득은 백인 가족소득의 91%에 해당했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미국의 인종·민족집단별 소득, 빈곤 수준, 1990-2000

인종·민족집단	1990		2000	
	가족소득(\$) ^a	빈곤(%) ^b	가족소득(\$) ^a	개인소득(\$) ^a
미국인 전체	35,225	10.0	51,200	26,000
백인(비히스패닉)	37,152	7.0	54,700	28,000
흑인	22,429	26.3	35,000	20,700
히스패닉계	25,064	22.3	36,000	17,100
아시아/태평양계	41,521	11.6	미상	미상
중국인	41,316	11.1	63,850	27,000
필리핀인	46,698	5.2	67,000	27,800
일본인	51,550	3.4	66,000	34,000
인도인	49,309	7.2	75,000	30,000
한인	33,909	14.7	50,000	20,000
베트남인	30,550	23.8	55,700	20,050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1993a, 1993b, 1994;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upplementary Survey PUMS Data Set(Yu et al., 2002)에서 재인용).

a : 중앙치 소득

b :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1년에 \$12,647 이하를 버는 경우에 이 가족은 1990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정의되었다.

3)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1년에 \$12,647 이하를 버는 경우에 이 가족은 1990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정의되었다.

더욱이 한인의 14.7%는 빈곤선 이하에 처해있었는데 이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의 빈곤률(10%)과 백인의 빈곤률(7%)에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한인은 백인에 비교해서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인도인에 비교해서도 한인은 가족소득에서 낮고 빈곤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영은 2000년 인구센서스 PUMS자료를 사용해서 한인을 비롯한 인종·민족집단의 소득수준을 조사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그의 연구에서 PUMS자료의 표본크기가 작아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 가족소득(소득불평등을 고려해서 평균치대신 중앙치를 사용)을 계산한 결과 한인 가족의 연소득은 \$50,000로 미국 전체 평균인 \$51,200에 못 미치고 백인 소득의 91%에 해당하였다. 1990년과 2000년에 걸쳐 한인과 백인의 가족소득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유의할만하다. 한인의 가족소득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낮으며 베트남인들처럼 난민신분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보다도 가족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25세 이상의 성인들의 개인 소득에서도 한인 개인소득은 \$20,000로 미국 전체 평균인 \$26,000에 크게 못 미치고 백인 소득 \$28,000의 71%에 불과했다. 한인 개인소득은 백인의 71%에 불과하지만 한인 가족소득은 백인의 91%에 달하는 것은 가족의 여러 성원들이 일을 해서 가족소득을 늘리기 때문이다. 유의영은 한인들의 가족소득과 개인소득이 낮은 이유를 첫째,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일부 고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세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둘째, 한인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력과 직업경험을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많은 점들을 들었다.

2000 PUMS 자료를 사용해서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평균 개인 총소득을 비교하면 위의 결과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5개의 아시아인 민족집단 중에서 인도인들의 평균소득이 \$44,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인, 중국인의 순서로 높다(<표 III-19> 참조). 한인의 평균소득은 \$31,013으로 베트남인보다는 높았지만 그 외의 아시아계 집단에 비교해서 낮았다. 미국에서 정

착 역사가 다른 아시아계 집단보다 길은 중국인과 일본인 2세(3세 이상 포함)는 다른 민족집단의 동일세대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높았다. 한인의 경우에는 1.5세와 2세의 연령이 아직 낮은 이유로 1세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낮았다. 전체적으로 한인은 모든 세대에서 다른 아시아계 민족집단에 비교해서 평균소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민족집단별 1999년 평균 개인 총소득(\$)

민족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인	31,013	32,852	28,182	23,751
인도인	44,354	48,449	31,096	22,736
중국인	36,732	36,007	34,176	41,326
일본인	43,106	44,168	37,828	42,923
베트남인	25,277	26,138	26,015	12,815
전체 집단	36,625	37,712	30,596	36,531

(2) 재캐나다 한인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소득이다. 199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16,934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5,196달러의 67%에 불과하다. 2001 인구센서스에 따르면(<표 III-20> 참조), 한인의 평균개인소득은 20,065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평균개인소득인 29,769달러의 67%에 불과했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 중에 한인의 소득은 캐나다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취업률에서는 한인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취업률을 따라잡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해도 여전히 캐나다 전체 인구의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을 비교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교해서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15세 이상의 여성들의 평균개인소득(모든 소득원 포함)은 16,919달러였는데, 이 액수는 한인 남성들의 평균개인소득은 23,370달러의 72%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인 남녀 간의 소득격차는 6,451달러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남녀 간 소득격차인 13,980달러에 비교해서 대략 1/2 수준이다.

한인들의 소득원을 조사하면 대부분이 임금(earnings)에 의존하고 있다. 2001년 당시 15세 이상의 한인 인구의 81%는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캐나다 전체 인구 중 77%가 임금을 소득원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한인들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노령보장(Old Age Security), 캐나다 및 퀘벡 연금계획(Canada and Quebec Pension Plans) 등 정부양도프로그램(government transfer programs)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는 적다. 2000년 당시 한인 소득의 10%가 정부양도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졌지만 캐나다 전체 인구의 소득의 12%가 동일한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얻었다(Statistics Canada, 2007). 한인들의 짧은 근속연수, 젊은 연령, 낮은 시민권자 비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소득보존프로그램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0> 재캐나다 한인의 평균개인소득(2000)

(단위 : \$, %)

연령집단	한인 인구				캐나다 전체 인구		
	남자	여자	전체	소득 비율	남자	여자	전체
15 ~ 24	6,289	6,636	6,468	64	11,273	9,046	10,182
25 ~ 44	27,354	19,469	23,136	69	40,450	26,306	33,308
45 ~ 64	28,979	20,916	25,226	68	46,955	26,767	37,026
65세 이상	21,899	14,463	17,764	73	30,775	19,461	24,437
전체	23,370	16,919	20,065	67	36,865	22,885	29,769

출처: Statistics Canada, 2001 Census of Canada.

주: 소득비율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개인소득 대비 한인의 개인소득 비율을 가리킴.

2001년 인구센서스의 5% 표본자료를 사용해서 한인과 타 아시안 집단들의 개인소득을 비교한 결과 한인들은 캐나다 전체 인구뿐만 아니라 타 아시안 집단들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참조). 아시안 집단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일본인과 인도인이었고, 한인은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로 이민 온 베트남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다. 한인의 소득을 세대별로 비교하면 1세 < 1.5세 < 2세의 순서로 높았다. 1세와 1.5세의 소득은 동일세대 타 아시아인 집단의 소득에 비교해서 여전히 낮았지만 2세의 소득은 타 아시아인 2세에 비교해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III-21> 캐나다 아시아인 민족집단별 평균개인소득

(단위 : \$)

민족집단	전체	1세	1.5세	2세(3세 포함)
한인	22,116	20,014	28,469	34,708
인도인	28,219	26,510	33,711	34,243
중국인	25,984	22,911	34,736	40,053
필리핀인	25,847	25,088	29,106	31,114
베트남인	25,055	23,019	31,421	31,217
동남아시아인(일본인)	30,850	24,856	27,337	39,439
전체 집단	26,580	24,107	33,116	37,575

주: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들만 분석에 포함. 동남아시아인 범주에는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함.

소득상황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996년에는 한인 가구의 44.5%가 빈곤가구였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전체 가구의 19.7%에 비교해서 2.3배에 해당하고 캐나다에서 하층계급에 속하는 흑인과 라틴계의 빈곤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에는 한인 가구의 43%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16%였다. 따라서 1996~2001년 기간에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빈곤가구비율은 19.7%에서 16%로 3.7%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한인의 빈곤가구비율은 44.5%에서 43%로 1.4%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 인구에서 빈곤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0년 당시 15세 이하의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48%가 빈곤가구의 자녀였는데 동일연령의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 중 빈곤

가구비율은 비율은 19%에 그쳤다.

독신 성인(unattached adults)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에 한인 독신 성인들의 72%가 빈곤층이었는데 캐나다 인구 중 독신자의 빈곤률은 38%였다.

독신 노인들은 특별히 빈곤층이 될 위험이 크다. 2000년에 65세 이상의 한인 독신 노인들의 80%가 빈곤층이었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독신 노인들의 빈곤률의 2배에 해당한다.

독신 노인 여성들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다. 2000년에 85%의 독신 한인 노인 여성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였는데, 이 수치는 독신 한인 노인 남성들의 빈곤률 57%와 캐나다 독신 노인 여성들의 빈곤률 4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 장에서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캐나다 동포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 수준을 조사하였다. 북미동포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세대교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를 1세, 1.5세, 2세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위를 비교하고, 한인 세대를 다른 아시안 집단의 동일세대와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한인 1.5세와 2세는 10~20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부분 이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1.5세와 2세는 1세에 비교해서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세에 비교해서 자영업이나 또는 한인 사업체의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민족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거주국 정착의 역사가 긴 중국인과 일본인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한인과 같이 최근 이민자 집단인 인도인과 베트남인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인 1.5세와 2세의 아직 어린 연령구조와 이들의 영어

능력, 현지 교육, 그리고 주류사회문화에의 동화 정도를 감안하면 이들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자영업과 민족경제로부터 이탈하고 그 대신에 주류사회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미동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세대별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1세는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및 소득 수준간의 불일치가 심하고 낮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으로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상황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자영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되고 장시간 노동과 무보수 가족노동을 통해 생계유지 차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 반면 1.5세와 2세는 교육수준과 전문직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동포 사회에서는 세대간 상향적 신분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설문조사 결과

1. 청소년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종교생활
3. 가족 관계 및 가족 생활
4.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관계
5. 한인 정체성 및 한국문화 유지 수준
6.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

I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설문조사 결과

한인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청소년의 종교성향,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관계, 한인 정체성 및 한국문화 유지 수준, 한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조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인 SurveyMonkey 사이트(www.surveymonkey.com)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이었다. 2007년 10월 22일 현재 총 821명이 참여하였는데 불충분한 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769개의 유효 사례수를 갖고 분석하였다.

1. 청소년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최종 표본에 선정된 한인 청소년(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769명으로 이중 미국에서 참여한 학생은 505명(65.7%)이었고, 캐나다에서 참여한 학생은 264명(34.3%)으로서 미국에서 참여한 학생인 2배가량 많았다. 전체 응답자들 중 여성이 442명(57.5%), 남성이 327명(42.5%)이어서 여성이 약간 더 많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232명(30.4%)이었고, 대학생은 421명(55.2%)으로서 대학생 비율이 높게 포함되었다.

또한, 자신을 1.5세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437명(56.8%), 2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240명(31.2%)으로서 1세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92명(12.0%)보다 많았다. 그리고 1.5세의 비율이 높아서 한국에서 출생한 응답자들이 508명(66.1%)로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들(251명, 32.6%)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어린 나이에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한 1.5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방식에 의해 구분한 1세, 1.5세, 2세 이상의 비율은 18.8%, 38.8%, 42.3%로서 1.5세보다 2세 이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지각하고 있는 세대 구분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2. 종교생활

한인 성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한인 청소년에게 교회는 사회관계의 기반이고 한인 커뮤니티 참여의 도관(conduit)이다. 학교에서 한인 학생 또는 친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한인교회를 통해 한인과 교제하고 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연결된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를 밝힌 응답자 중 367명(47.7%)이 개신교도, 176명(22.9%)이 천주교도라고 밝혀서 전체 응답자의 70.6%가 기독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표 IV-1> 종교 성향

종교 종류	응답자수(백분율)
① 개신교(Protestant)	367명(47.7%)
② 불교(Buddhist)	20명(2.6%)
③ 천주교(Catholic)	176명(22.9%)
④ 유교(Confucianist)	0명(0%)
⑤ 무슬림(Muslim)	2명(0.3%)
⑥ 기타(Other)	79명(10.3%)
⑦ 종교 없음	121명(15.7%)
무응답	4명(0.4%)
사례수	769명(100%)

1세, 1.5세, 2세의 종교 성향을 비교해 보면(<표 IV-2> 참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2세가 개신교의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고(57.4%로 약 15% 높음) 천주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으며(9.6%

로 약 20% 낮음), 기타 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22.0%로 약 10% 높음). 종교가 없는 경우는 1세보다는 1.5세와 2세가 약 4% 정도 높았다.

<표 IV-2> 세대별 종교 성향 비교

종교 종류	1세	1.5세	2세	χ^2 값
① 개신교(Protestant)	56명(43.1%)	115명(42.9%)	167명(57.4%)	68.20 ***
② 불교(Buddhist)	6명(4.6%)	5명(1.9%)	4명(1.4%)	
③ 천주교(Catholic)	44명(33.8%)	79명(29.5%)	28명(9.6%)	
④ 유교(Confucianist)	0명(0%)	0명(0%)	0명(0%)	
⑤ 무슬림(Muslim)	0명(0%)	1명(.4%)	1명(.3%)	
⑥ 기타(Other)	6명(4.6%)	41명(15.3%)	64명(22.0%)	
⑦ 종교 없음	18명(13.8%)	26명(9.7%)	27명(9.3%)	
무응답	0명(0%)	1명(.4%)	0명(0%)	
사례수	130명(100%)	268명(100%)	291명(100%)	

기독교는 한인 청소년에게 중요한 정체성과 사회관계의 기반이다. 특별히 한인 청소년은 다른 인종/민족의 동일 세대에 비교해서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1주일에 1회 또는 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491명(63.9%)에 달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14명(40.8%)에 달한 반면 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69명(22.0%)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보면, 1세는 32.7%가, 1.5세는 40.9%가, 2세는 47.9%가 1주일에 여러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5세와 2세일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3> 참조).

<표 IV-3> 세대별 교회 출석 행태(기독교인에 한함)

출석 행태	1세	1.5세	2세	χ^2 값
① 주 수회	18명(32.7%)	47명(40.9%)	80명(47.9%)	19.31
② 주 1회	28명(50.9%)	54명(47.0%)	56명(33.5%)	
③ 월 2~3회	5명(9.1%)	11명(9.6%)	10명(6.0%)	
④ 월 1회	0명(0%)	1명(.9%)	4명(2.4%)	
⑤ 년 수회	2명(3.6%)	2명(1.7%)	8명(4.8%)	
⑥ 년 1회	0명(0%)	0명(0%)	2명(1.2%)	
⑦ 년 1회 내외	1명(1.8%)	0명(0%)	3명(1.8%)	
⑧ 무 출석	1명(1.8%)	0명(0%)	1명(.6%)	
사례수	55명(100%)	115명(100%)	167명(100%)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한인, 아시안, 소수인종으로서의 주변성과 한계성을 극복하는 정신적 대응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만 피부색과 부모의 인종/민족 특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의 백인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자긍심이 떨어질 때 종교는 자신에게 긍정적 자아의식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사회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인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생애 목표와 경력을 설계할 때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인 청소년의 종교적 몰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고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회관계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고, 자연스럽게 교우관계가 기독교인들과 맺어지고, 대학에 가서 한인 기독교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가 강화된다. 더욱이 한인들의 기독교 성향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몰입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한인 청소년의 종교적 몰입은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인종, 민족문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해 한인 청소년 중에는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성공에

몰입하는 소시민은 많아도 한인 커뮤니티, 인종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보다 크리스천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종교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양립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중 221명(31.0%)이 전적으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336명(47.2%)은 부분적으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단지 42명(5.9%)만이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독교인의 경우 세대별로 구분해 보아도(<표 IV-4> 참조), 세대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4> 세대별 종교정체성과 인종정체성 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인식

양립가능성 인식	1세	1.5세	2세	X ² 값
① 전적으로 가능	17명(30.9%)	36명(31.9%)	61명(36.5%)	5.34
② 부분적으로 가능	29명(52.7%)	64명(56.6%)	84명(50.3%)	
③ 전혀 불가능	3명(5.5%)	2명(1.8%)	8명(4.8%)	
④ 모름	6명(10.9%)	11명(9.7%)	14명(8.4%)	
사례수	55명(100%)	113명(100%)	167명(100%)	

만일 두 가지의 정체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욱 중요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종교정체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42명(35.3%), 민족정체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33명(19.4%)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8명(30.3%)이었다. 기독교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대별로 보면(<표 IV-5> 참조), 종교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경우가 약 50%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5〉 세대별 종교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의 비중

비중	1세	1.5세	2세	X^2 값
① 종교정체성 중요	27명(50.9%)	44명(40.0%)	82명(51.9%)	17.66
② 인종정체성 중요	11명(20.8%)	14명(12.7%)	12명(7.6%)	
③ 동등	10명(18.9%)	39명(35.5%)	44명(27.8%)	
④ 어느 것도 아님	1명(1.9%)	3명(2.7%)	4명(2.5%)	
⑤ 모름	4명(7.5%)	10명(9.1%)	16명(10.2%)	
사례수	53명(100%)	110명(100%)	158명(100%)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인 청소년에게 종교정체성, 특히 그리스천 정체성은 한인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 관계 및 가족 생활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인 가족의 평균 가족원수는 3.30명으로 미국 전체 평균인 3.14명보다 약간 크다. 한인 가구와 가족이 미국 평균보다 큰 이유는 한인 가족이 기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안정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전체 가족 유형 중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의 비율은 한인의 경우 82%인데 비해 미국 전체의 비율은 76%이다. 또한 결혼한 부부가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한인의 경우 54%인데 비해 미국 전체는 46%이다. 편모 또는 편부 가족에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사는 비율은 한인의 경우에 14.5%이지만 미국 전체는 28.2%이다.

한인 가족의 안정성은 이혼과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가 타인종과 타민족에 비교해서 낮은 면에서도 입증된다. 유의영 교수의 2000년 미국 인구 센서스 분석에 따르면 한인 중 이혼한 사람들의 비율이 5.3%인 것에 비교해서 백인의 이혼비율은 10%에 달했다. 한인 가족의 안정성은 대부분의 한인들이 최근의 이민자로서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인한다.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설문조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

녀 둘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전체 응답자의 6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5인 가족(19%), 3인 가족(10%)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이들의 평균 가족 규모는 4.11명이었다. 조사 응답자의 형제는 1명을 둔 경우가 76.0%로 제일 많았고, 2명을 둔 경우가 19.1%로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1명 내지 2명의 형제자매와 살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95.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형제 자매 중 첫째인 경우가 55.4%이었고, 둘째인 경우가 37.8%이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아버지가 미국과 캐나다 지역 이외에서 출생한 경우가 1.1%, 어머니는 1.0%로서 대부분이 북미지역 이외에서 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안정성 외에도 한인 청소년에게 유리한 점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65.8%, 어머니의 75.4%가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1세의 아버지는 69.4%, 1.5세의 아버지는 72.7%, 2세의 아버지는 55.9%로 1.5세의 아버지가 제일 높았고, 2세의 아버지가 제일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는 1세가, 86.3%, 1.5세가 84.7%, 2세가 57.9%로 나타나서 2세의 어머니가 제일 낮은 대졸 비율을 보였다.

부모의 고등교육은 자녀에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를 촉진하여 자녀가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을 획득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한인 청소년의 높은 교육열망과 직업열망은 부모의 고등교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청소년의 28.0%는 학사학위, 20.3%는 석사학위, 44.1%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1.5세의 48.8%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려는 높은 교육열망을 보였다(<표 IV-6> 참조)

<표 IV-6> 세대별 희망 학력

희망 학력	1세	1.5세	2세	χ^2 값
① 고졸	3명(2.3%)	8명(3.3%)	5명(2.2%)	14.91
② 전문대졸	3명(2.3%)	1명(.4%)	3명(1.3%)	
③ 대학교졸	40명(31.0%)	68명(27.6%)	60명(26.0%)	
④ 석사졸	32명(24.8%)	38명(15.4%)	56명(24.2%)	
⑤ 박사졸	49명(38.0%)	120명(48.8%)	96명(41.6%)	
⑥ 기타	2명(1.6%)	11명(4.5%)	11명(4.8%)	
사례수	129명(100%)	246명(100%)	231명(100%)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희망 학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IV-7, IV-8> 참조).

<표 IV-7> 부 학력과 자녀 희망 학력 간의 관련성

(단위 : %)

부 자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졸	기타
고졸	.0	.2	.2%	.2	.5	1.5	.0	.0
전문대 졸	.0	.0	.2%	.3	.5	.3	.0	.0
대졸	.0	.3	.0%	6.7	3.8	17.2	.0	.0
석사	.0	.0	.5%	4.6	2.9	12.1	.0	.0
박사	.0	.2	.3%	5.5	6.1	32.0	.0	.0
기타	.0	.0	.0	.8	.9	2.5	.0	.0

<표 IV-8> 모 학력과 자녀 희망 학력 간의 관련성

모 자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이상 졸	기타
고졸	.2	.0	.0	.3	.3	1.7	.0	.0
전문대 졸	.2	.0	.0	.2	.3	.6	.0	.0
대졸	.0	.2	.2	4.0	3.7	20.0	.0	.0
석사	.0	.0	.2	2.3	2.8	14.9	.0	.0
박사	.0	.0	.9	2.6	5.5	34.9	.0	.0
기타	.0	.0	.0	.3	.8	3.1	.0	.0

그리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으로 한인 청소년의 66.7%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교사와 같은 전문직을 선택하였고, 15.2%는 관리직을 선택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1세, 1.5세, 2세 모두 전문직을 선호하였는데, 1.5세가 제일 높았다(<표 IV-9> 참조).

<표 IV-9> 세대별 주요 희망 직업

희망 직업	1세	1.5세	2세	χ^2 값
① 전문직	87명(66.9%)	175명(71.1%)	147명(67.3%)	25.88
② 고위직 임원	22명(16.9%)	32명(13.0%)	38명(16.4%)	
③ 행정직	3명(2.3%)	7명(2.8%)	4명(1.7%)	
④ 기술직	5명(3.8%)	3명(1.2%)	4명(1.7%)	
⑤ 사업	7명(5.4%)	14명(5.7%)	10명(4.3%)	
사례수	130명(100%)	246명(100%)	232명(100%)	

한인 청소년의 아버지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과 관리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업 주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서비스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10> 부 직업과 자녀 희망 직업 간의 관련성

(단위 : %)

모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6.8	8.7	3.4	3.5	22.1	5.7	2.1	.2	.6	.0	.6	3.1
②	2.0	3.8	.5	.3	5.4	1.1	.9	.0	.0	.0	.2	1.2
③	.3	.5	.0	.0	.9	.3	.0	.2	.0	.0	.0	.2
④	.3	.3	.2	.3	.9	.0	.0	.0	.2	.0	.0	.2
⑤	.0	.5	.3	.6	3.2	.3	.2	.0	.0	.0	.2	.3
⑥	.0	.2	.0	.0	.0	.0	.0	.0	.0	.0	.2	.0
⑦	.0	.3	.0	.0	.6	.0	.0	.0	.0	.0	.2	.0
⑧	.0	.0	.0	.0	.0	.0	.0	.0	.0	.0	.0	.0
⑨	.0	.0	.0	.0	.0	.0	.0	.0	.0	.0	.0	.0
⑩	.0	.2	.2	.0	.3	.0	.0	.0	.0	.0	.0	.0
⑪	.0	.2	.0	.0	.0	.0	.0	.0	.0	.0	.0	.0
⑫	.3	.6	.5	.8	1.8	.3	.0	.0	.0	.2	.0	1.2

주: ① 전문직, ② 고위 관리직, ③ 사무직, ④ 기술직, ⑤ 자영업, ⑥ 판매직, ⑦ 개인서비스직, ⑧ 농부, 어부, ⑨ 생산직, 운전자, 육체노동자, ⑩ 전업 주부, ⑪ 실업자, ⑫ 기타

<표 IV-11> 모 직업과 자녀 직업 간의 관련성

(단위 : %)

부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1.1	1.4	3.7	.8	14.4	4.3	5.6	.0	.6	18.5	3.7	2.9
②	1.7	.8	.3	.3	3.2	.6	.5	.0	.2	5.2	1.2	1.4
③	.0	.0	.2	.0	.2	.3	.5	.0	.0	.9	.0	.3
④	.3	.2	.0	.0	.3	.2	.0	.0	.0	1.2	.2	.0
⑤	.2	.2	.0	.3	1.7	.5	.6	.0	.0	1.2	.3	.6
⑥	.0	.0	.2	.0	.0	.0	.0	.0	.0	.0	.2	.0
⑦	.2	.2	.2	.0	.2	.0	.0	.0	.0	.5	.0	.0
⑧	.0	.0	.0	.0	.0	.0	.0	.0	.0	.0	.0	.0
⑨	.0	.0	.0	.0	.0	.0	.0	.0	.0	.0	.0	.0
⑩	.0	.0	.0	.0	.2	.0	.0	.0	.0	.5	.0	.0
⑪	.0	.0	.0	.0	.0	.0	.0	.0	.0	.2	.0	.0
⑫	.2	.3	.2	.3	1.2	.3	.3	.0	.0	1.5	.3	1.1

주 : 상기 표와 동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의 직업과 모의 직업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가 약간은 다르지만 부모의 직업과 관련 없이 자녀들 자신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표 IV-10, IV-11> 참조).

경제적인 면에서 한인 청소년은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가족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한가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충분하다’(34.1%) 또는 ‘매우 충분하다’(14.9%)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체로 부족하다’(21.0%) 또는 ‘매우 부족하다’(8.6%)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19.4% 포인트 많았다. 그리고 ‘충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1.4%였다. 세대 별로 보면, 1세는 ‘충분하다(38.6%)’는 비율과 ‘충분하지 않다(37.7%)’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5세는 ‘충분하다(45.5%)’는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29.3%)’는 비율보다 많았으며, 2세는 ‘충분하다(55.9%)’는 비율이 ‘충분하지 않다(29.5%)’는 비율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것은 1세보다 1.5세가, 1.5세보다 2세가 경제적 측면에서 나은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IV-12> 참조).

〈표 IV-12〉 세대별 가정의 경제적 안정 지각 정도

	1세	1.5세	2세	X ² 값
① 매우 부족하다	12명(9.8%)	17명(7.2%)	21명(9.3%)	15.43
② 대체로 부족하다	34명(27.9%)	52명(22.1%)	35명(15.4%)	
③ 보통	29명(23.8%)	59명(25.1%)	44명(19.4%)	
④ 대체로 충분하다	34명(27.9%)	76명(32.3%)	84명(37.0%)	
⑤ 매우 충분하다	13명(10.7%)	31명(13.2%)	43명(18.9%)	
사례수	122명(100%)	246명(100%)	232명(100%)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과 응답자의 희망 학력 간에는 거의 상관없이 고학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V-13> 참조). 그런데, 이러한 희망 학력을 달성하기 위해 학비와 생활비 등의 비용과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IV-13〉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응답자) 희망 학력 간의 관련성

(단위 : %)

희망 학력 경제수준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석사	박사	기타
매우 불충분	.6	.2	2.6	.8	4.2	.2
불충분	.2	.8	5.9	4.8	8.5	.9
중간	.3	.2	5.7	4.3	9.6	1.2
충분	1.1	.2	10.1	7.3	14.4	1.2
매우 충분	.2	.0	3.7	2.9	7.4	.6

미국 또는 캐나다 가족과 비교해서 자기 가족의 소득이 어떤 수준인가를 질문한 결과 미국 가족 또는 캐나다 가족 평균소득과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3.8%, 평균소득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2.1%, 평균 소득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4.1%로 나타났다.

안정된 가족구조와 가족소득에 기인하여 한인 청소년이 느끼는 생활만족

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44.7%는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 26.0%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15.7%만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1세는 ‘만족(70.2%)’의 비율이 ‘불만족(19.3%)’의 비율보다 매우 많았고, 1.5세는 ‘만족(66.9%)’의 비율이 ‘불만족(15.7%)’의 비율보다 매우 많았으며, 2세는 ‘만족(76.1%)’의 비율이 ‘불만족(13.3%)’의 비율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를 보면, 2세, 1세, 1.5세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IV-14> 참조).

<표 IV-14> 세대별 생활만족도

	1세	1.5세	2세	X ² 값
① 전혀 만족 못함	6명(4.8%)	7명(3.0%)	5명(3.1%)	15.64
② 대체로 만족 못함	18명(14.5%)	30명(12.7%)	23명(10.2%)	
③ 보통	13명(10.5%)	41명(17.4%)	26명(11.5%)	
④ 대체로 만족	63명(50.8%)	103명(43.6%)	97명(42.9%)	
⑤ 매우 만족	24명(19.4%)	55명(23.3%)	75명(33.2%)	
사례수	124명(100%)	236명(100%)	226명(100%)	

한인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려 하고, 한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참조). 한인 부모의 자녀 사회화에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말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0.4%,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62.4%,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현재 가르치거나 과거에 가르쳤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9.9%, 부모가 한국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2.8%, 자녀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6.0%였다. 그러나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는 18.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는 46.9%로 많아서 비록 자녀에게 한국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직업은 미국 또는 캐나다 주류사회에서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의 경향을 부의 직업과 관련지어 보면(<표 IV-16> 참조),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즉, 부가 전문직과 관리직에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약간 한국 관련 직업 갖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모의 경우(<표 IV-17> 참조)는 부와 약간 다르게 무직인 경우와 전업주부인 경우에 한국 관련 직업 갖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15> 부모의 한국과 관련한 자녀 사회화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4.4	3.3	11.3	17.2	63.8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2.2	7.4	20.0	34.7	35.7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6.7	10.1	20.8	21.1	41.3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18.7	28.2	35.0	10.8	7.4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10.8	10.1	19.2	21.7	38.2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2.8	1.1	3.5	14.9	77.9
7.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3.3	3.6	17.1	25.7	50.3

〈표 IV-16〉 부의 주요 직업군과 자녀 사회화

(단위 : %)

	전문직 (19.7)	관리직 (15.1)	행정직 (4.9)	관리직 (5.5)	사업 (35.3)	판매 (7.6)	서비스 (3.4)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4.25	4.62	4.14	4.36	4.45	4.30	4.41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3.96	4.02	4.00	4.19	3.83	3.96	3.82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3.81	3.74	4.11	3.83	3.75	3.79	3.68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92	2.91	2.64	2.17	2.54	2.48	2.41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3.76	3.64	4.00	3.47	3.60	3.60	3.55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4.59	4.58	4.86	4.83	4.66	4.60	4.59
7.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4.14	4.20	4.18	4.28	4.18	4.13	4.27

〈표 IV-17〉 모의 주요 직업군과 자녀 사회화

(단위 : %)

	전문직 (13.5)	사업 (21.5)	판매 (6.1)	서비스 (7.5)	주부 (29.5)	무직 (5.8)	기타 (6.2)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4.08	4.43	4.16	4.49	4.54	4.22	4.43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4.04	3.93	3.76	3.71	3.96	3.81	3.98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3.84	3.76	3.68	3.86	3.76	3.59	3.75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78	2.50	2.39	2.43	2.80	3.00	2.60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3.68	3.73	3.39	3.43	3.66	3.16	3.77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4.55	4.73	4.47	4.69	4.63	4.76	4.70
7.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4.06	4.26	4.08	4.02	4.26	3.97	4.28

종합적으로 한인 청소년은 안정된 가족과 부모의 높은 인적자원과 교육열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소개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가정 내 사회화는 한인 청소년에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관계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한인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훨씬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친척 및 친지 방문, 유학 및 어학연수, 단기 및 장기 취업 등의 목적으로 직접 방문하기고 하고, 이메일 또는 싸이월드와 같은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모국과 연계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24시간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모국 소식과 문화예술에 항상 접촉하고 있다. 인터넷에 능숙한 한인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한국 영화 또는 TV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료로 항상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음악이 미국의 팝송보다 훨씬 친근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 보아, HOT, 신화, 동방신기와 같은 한국의 십대 연예인들을 잘 알고 좋아한다. 한국의 국제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와 자주 접촉하면서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62.9%, 2~3년 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은 72.3%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32.2%,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는 사람들은 25.9%,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27.3%, 한국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29.4%에 그쳤다. 즉, 대부분의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은 방문하고 싶은 나라이지 그곳에서 일하거나 살고 싶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자신의 직업과 경력개발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1.1%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교해서 20.5% 포인트 많았다. 즉, 비록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살더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자기개발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한국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세, 1.5세, 2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8> 세대별 한국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단위: %)

태도와 만족도 내용	1세	1.5세	2세
한국뉴스에 대한 관심	82.3	71.6	44.0
2~3년 내 한국방문 계획	75.3	73.5	71.1
한국 내 공부나 훈련 계획	39.8	38.2	26.1
한국 방문 희망	82.3	89.1	87.6
한국 동년배 접촉 희망	76.1	75.1	65.2
한국인 배우자 선호	70.8	68.6	53.2
한국관련 직업 희망	38.1	31.2	15.5
부모보다 한국에 더 흥미	26.8	23.9	13.0
부모보다 한국을 더 이해	19.4	16.3	7.2
한국어 배웠다면 직업에 유리	49.1	52.4	53.2
한국 근무 희망	40.7	32.8	17.2
한국 거주 희망	38.9	33.8	21.2
사례수	113명(100%)	257명(100%)	284명(100%)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84.9%에 달하고 한 사람이 평균 3.2회 정도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접하는 방식은 방문보다는 주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방송 및 뉴스를 접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뉴스와 방송을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2%에 달했다. TV를 통해 한국 뉴스와 방송을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20.3%였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를 통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8.5%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국의 뉴스와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한국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5.7%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인이 ‘좋다 vs. 나쁘다’, ‘능력이 있다 vs.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vs.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vs. 친밀하지 않다’의 4개 차원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했다(<표 IV-19, IV-20> 참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좋다’, ‘능력이 있다’, ‘활동적이다’,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Dynamic Korea’라는 한국 홍보 문구처럼 한국과 한국인이 활동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한국과 한국인이 ‘친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비교하면 한국인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단위 : %)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평균 값	
	5점	4점	3점	2점	1점		
좋다	29.0	50.7	16.7	2.8	0.8	4.04	나쁘다
능력이 있다	34.5	46.5	14.5	3.0	1.4	4.10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44.3	36.5	14.8	3.3	1.1	4.20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24.8	41.3	25.7	6.2	2.1	3.81	친밀하지 않다

<표 IV-20>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

(단위 : %)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평균값	
	5점	4점	3점	2점	1점		
좋다	16.2	47.0	28.5	6.9	1.4	3.70	나쁘다
능력이 있다	39.3	40.9	14.2	3.9	1.7	4.12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35.2	36.6	17.5	9.0	1.7	3.90	비활동적 이다
친밀하다	22.1	42.3	25.0	8.7	1.9	3.74	친밀하지 않다

한국에 대해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이 좋다’에 대해서는 1.5세와 2세가 1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이 능력 있다’에 대해서는 2세가 1.5세와 1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이 활동적이다’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이 친밀하게 느껴진다’에 대해서는 1.5세가 가장 높았고, 2세가 가장 낮았다(<표 IV-21> 참조).

<표 IV-21> 세대별 한국에 대한 감정

평가 요소	1세 (114명)	1.5세 (234명)	2세 (225명)	F 값
좋다	3.83(.86) ^b	4.09(.80) ^a	4.09(.76) ^a	4.63 ^{***}
능력있다	3.89(.96) ^b	4.05(.86) ^b	4.31(.74) ^a	11.12 ^{***}
활동적이다	4.31(.87)	4.17(.97)	4.17(.77)	1.08
친근하다	3.82(1.06) ^{a,b}	3.88(.94) ^a	3.66(.90) ^b	3.20 [*]

주 1) 위 점수는 1점(전혀 00하지 않다) ~ 5점(매우 00하다)의 평균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한국인에 대해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한국인이 좋다’에 대해서는 ‘한국이 좋다’와 유사하게 1.5세와 2세가 1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인이 능력 있다’에 대해서는 2세, 1.5세, 1세 순으로 낮아졌다. ‘한국인

이 활동적이다’에 대해서는 ‘한국이 활동적이다’와 유사하게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이 친밀하게 느껴진다’에 대해서도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표 IV-22> 참조).

<표 IV-22> 세대별 한국인에 대한 감정

평가 요소	1세 (114명)	1.5세 (234명)	2세 (225명)	F 값
좋다	3.46(.84) ^b	3.67(.88) ^a	3.82(.85) ^a	6.41 ^{**}
능력있다	3.90(.93) ^c	4.11(.96) ^b	4.31(.82) ^a	8.24 ^{***}
활동적이다	3.80(1.15)	3.94(1.05)	4.02(.90)	1.77
친근하다	3.72(.97)	3.79(.96)	3.64(.97)	1.28

주 1) 위 점수는 1점(전혀 00하지 않다) ~ 5점(매우 00하다)의 평균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인 청소년들은 미국과 캐나다가 자신들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선호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려거나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국 방문과 연수 프로그램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문화체험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모국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동포 차세대의 시각과 욕구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인 정체성 및 한국문화 유지 수준

1) 이중정체성

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코리안 캐나다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 한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이중정체성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포 차세대는 자신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

들로부터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한인 또는 아시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면접한 대부분의 한인 청소년들은 그러한 사실을 감추려하지 않고 한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2) 한인 정체성 수준

한인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Phinney(1992)의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라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중복적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7개의 문항들만을 선택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다(<표 IV-23> 참조).

<표 IV-23> 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수준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값
	1점	2점	3점	4점	5점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2.2	3.0	11.3	27.1	56.4	4.33
2.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9	6.9	23.2	33.0	33.0	3.84
3.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6.9	15.5	23.0	26.3	28.3	3.54
4.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4.3	11.4	26.0	30.3	28.0	3.66
5. 나는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2.6	4.5	19.1	30.6	43.2	4.07
6. 나는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5.2	9.8	22.8	28.6	33.6	3.76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10.9	14.2	24.6	22.4	27.9	3.42

조사 결과 7개의 문항들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한인 정체성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 또는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크게 느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든지,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등 민족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정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문항들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서 3.9점으로 한인 청소년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정체성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가 4.03점으로 제일 높고, 1.5세가 3.91점, 2세가 3.5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이민자 연구들 연구에서 후세대로 갈수록 해당 민족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표 IV-24> 참조).

<표 IV-24> 세대별 한국 민족 정체성

	1세 (114명)	1.5세 (234명)	2세 (225명)	F 값
정체성	4.03(.77) ^a	3.91(.90) ^a	3.58(.87) ^b	14.67 ^{**}

주 1) 위 점수는 1점(전혀 00하지 않다) ~ 5점(매우 00하다)의 평균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6.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개의 문항들을 질문하였다(<표 IV-25> 참조). 조사 결과, 한인 정체성 수준에 비교해서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는 보통 수준에 머문다. 유일하게 네트워크 수준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의 인기 사이트인 싸이월드의 회원이 되어 한국

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를 한다. 반면 한국과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낮은 분야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에서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및 유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한인 청소년의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1점	2점	3점	4점	5점	
1.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2.0	16.0	29.5	20.4	22.1	3.25
2.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18.1	19.1	24.9	17.8	20.1	3.04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1.9	17.6	26.5	19.3	14.6	3.08
4.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6.5	11.6	31.8	28.8	21.4	3.47
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11.1	10.0	14.8	19.7	44.4	3.76
6.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8.3	12.2	33.8	25.2	20.6	3.38
7.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9.8	18.5	34.5	22.4	14.7	3.14
8.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12.0	22.6	35.1	18.1	11.9	2.96
9.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8.4	20.9	25.7	20.6	14.4	2.92
1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4.7	23.5	27.2	14.2	10.5	2.62

세대별로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과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는데, 1세가 3.52점, 1.5세가 3.28점, 2세가 2.89점으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이러한 것은 점차 차세대로 갈수록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감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V-26> 세대별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

	1세 (114명)	1.5세 (234명)	2세 (225명)	F 값
네트워크 수준	3.52(.79) ^a	3.28(.91) ^b	2.89(.80) ^c	25.46 ^{**}

주 1) 위 점수는 1점(전혀 00하지 않다) ~ 5점(매우 00하다)의 평균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주 2)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정리하면 한인 청소년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외현적으로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과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이지만 한인 단체에 적극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및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한인 청소년들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점은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이다.

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심층면접 결과

1. 면접방법과 응답자 특성
2. 출생지와 성장지
3. 친구, 연애, 결혼, 부모-자녀관계
4. 언어사용
5. 1.5세 정체성
6. 민족정체성
7. 종교와 교회
8. 교육, 취업, 경력개발
9. 모국과의 관계와 모국에 건의사항

V. 차세대의 생활과 의식: 심층면접 결과

1. 면접방법과 응답자 특성

앞의 장들에서는 표본 설문조사 결과들을 중심으로 차세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활동, 민족정체성, 언어사용, 친구관계,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설문지를 사용하는 설문조사법은 응답자의 내적 심리상태와 과정들에 대한 진솔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법은 이미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들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을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면접법을 사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면접법에는 면접 방식의 표준화 또는 구조화 정도에 따라 크게 표준화(구조화) 면접법과 비표준화(비구조화) 면접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방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준표준화 면접법이 있다(김광웅, 1996). 본 연구에서는 준표준화 면접법을 사용하여 질문 문항들을 기록한 면접표의 범위 안에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에 사용된 질문 문항들은 <표 V-1>의 면접표에 표시되어 있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다. 면접한 내용은 노트에 기록하고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뒤 녹취하였다. 각 응답자와의 면접이 끝난 후 면접 내용을 기록한 메모 수준의 노트를 완전한 문장으로 풀어 정리하고, 녹취문과 대조하여 빠지거나 잘못 기록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후의 면접에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모든 응답자에 대한 면접 노트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후에는 코딩 절차를 거쳐 핵심적인 개념들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에 따라 면접 기록을 재배치하여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

하였다. 이런 질적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스트라우스(Strauss, 1987)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절차를 따랐다.

<표 V-1> 심층면접을 위한 면접표(interview schedule)

항목	세부항목
출생지와 성장지	① 출생지 ② 성장지(성장한 도시의 이름, 경제수준, 인종 및 민족구성, 한인과의 접촉 정도) ③ 이민 연도, 이민세대 ④ 교육환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특성, 학생들의 인종 및 민족구성, 한인학생 비율 및 접촉 정도) ⑤ 대학에서의 전공 및 전공 선택 동기
친구, 연애, 결혼	① 가장 친한 친구 3명의 인종 및 민족구성 ② 현재 사귀는 이성 친구와 선호하는 데이트 파트너 ③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인종 및 민족, 이민세대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	① 한인으로서의 민족동일시 ②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③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자기동일시와 자긍심 ④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정도 ⑤ 미국 주류문화에 동화된 정도
언어상황	① 본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 ②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사용패턴 ③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④ 한국 언론매체 접촉 정도 ⑤ 미국 언론매체 접촉 정도
직업, 소득, 계층	① 현재 직업 및 직위 ②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 ③ 고용주의 인종 및 민족, 직장 동료의 인종 및 민족구성 ④ 소득수준(연봉) ⑤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종교	① 종교 ② 종교생활 ③ 출석 종교기관의 인종 및 민족특성
모국과의 관계	① 한국 방문 여부 ②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싶은 의향
모국 정부에의 건의사항	

앞서 제1장의 연구방법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대학 교수, 목사, 친척 등 현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많은 질적 연구가 그러하듯이 본 연구결과도 재미동포 차세대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차세대의 의식과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응답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출생과 성장배경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의 경험에서 몇 가지 상당히 일관된 현상들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면접한 응답자들은 총 29명으로 이중 남자가 11명, 여자가 18명으로 여자가 약간 많다. 세대별로 1.5세는 16명, 2세는 13명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5.6세로서 대부분이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변호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분석가 등 전문직이 많았는데, 이런 결과는 1.5/2세 중에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법학, 의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다음 절부터는 면접표에서 질문한 주제에 따라 면접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V-2〉 응답자 기본 인적 정보

번호	성별	연령	세대	출생지	현 거주지	직업
1	남	22	2	미국 뉴욕	뉴욕, NY	대학생
2	여	24	1.5	한국(14세에 이민)	뉴욕, NY	대학생
3	남	22	2	미국 뉴욕	뉴욕, NY	대학졸업(IT 분야 취업준비)
4	여	24	1.5	한국(6세에 이민)	뉴욕, NY	IT 분석가
5	여	19	1.5	한국(14세에 이민)	볼티모어, MD	대학생
6	여	26	2	미국 매릴랜드	볼티모어, MD	대학원 박사과정
7	남	23	1.5	한국(6개월 때 이민)	엘리코트 시티, M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8	여	26	1.5	한국(11세에 이민)	볼티모어, MD	office manager
9	여	26	2	미국 매릴랜드	볼티모어, M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	여	26	1.5	한국(16세에 이민)	볼티모어, MD	병원 사무원
11	남	35	1.5	한국(2세에 이민)	엘리코트 시티, MD	법률회사 변호사
12	여	24	2	미국 매릴랜드	엘리코트 시티, MD	대학생
13	여	21	1.5	한국(12살 때 이민)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14	남	22	2	미국 에반스톤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15	여	21	2	미국 시카고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16	여	27	1.5	한국(15세에 이민)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원 박사과정
17	여	18	2	미국 밀워키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18	여	20	1.5	한국(15세에 이민)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19	여	20	2	미국(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귀국)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20	남	21	2	미국 매릴랜드	어바나 샴페인, IL	대학생

〈표 V-3〉 응답자 기본 인적 정보(계속)

번호	성별	연령	세대	출생지	현 거주지	직업
21	남	29	2	미국 시카고	세리토스, CA	법률회사 변호사
22	여	27	1.5	한국(2세에 이민)	세리토스, CA	가정주부
23	남	25	1.5	한국(6개월 때 이민)	로스앤젤레스, CA	회사 매니저
24	여	20	1.5	아르헨티나 (19세에 이민)	애나하임, CA	대학생
25	남	50	1.5	한국(19세에 이민)	로스앤젤레스, CA	한인권익단체 전국회장
26	남	34	1.5	한국(16세에 이민)	가든그로브, CA	주류회사 세일즈맨
27	여	29	1.5	한국(3세에 이민)	가든그로브, CA	대학원생
28	남	33	2	미국 밀워키	서울	원고정리자 (편집·교열)
29	여	29	2	미국 시카고	서울	대학원생(서울에 서 영어교사)

2. 출생지와 성장지

1) 출생지

총 29명의 응답자 중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15명,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13명,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한 사람이 1명 포함됐다. 특이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경우이다.⁴⁾ 세대의 개념 정의상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2세가 되지만 현재 대학생인 A(20세 여성)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4)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아르헨티나와 기타 남미 국가들은 불안한 정국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브라질과 멕시코로 이주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재 이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녀가 먼저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부모가 후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면담한 Johanna는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경우이다.

까지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여서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1.5세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A를 낳고 한국에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귀국하여 그녀는 초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그의 아버지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왔을 때 함께 와서 중학교부터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 주립대학의 학부생으로 재학 중에 있다. 이렇듯 1.5/2세의 세대구분과 정체성 형성에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2) 성장지

미국에서 출생한 2세들의 경우에 이들이 성장한 지역은 인종 및 민족구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출생한 S(22세 남성)는 뉴욕시의 Elm Hurst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는데, 이 지역은 여러 인종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고, 한국인을 포함해서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인, 남미인 1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성장한 S는 자연스럽게 한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S는 자신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반면 한국에서 출생하고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M(27세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Huntington Beach라는 백인 중상류층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녀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지역에서 자기와 남동생이 유일한 한인 학생이었다고 말한다. 이렇듯 1.5/2세가 어느 지역에서 성장했는가는 그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인종/민족과 계층의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는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없는 주로 백인 지역에서 성장한 1.5/2세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주로 백인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런 경험은 이들의 언어사용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쳐 미국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성장한 1.5/2세 중에는 주위에 소수인종/민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적 특성이 없는 일반 미국인으로 생각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5/2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빠르면 고등

학교 시절부터 늦게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관계는 백인 친구 중심의 관계로부터 한인 또는 아시안 친구 중심의 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학교에 와서는 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한인 1.5/2세의 친구관계는 한인과 기타 아시안, 특히 중국인 친구 중심으로 형성되는 패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3. 친구, 연애, 결혼, 부모-자녀관계

1) 친구관계

한 개인의 정체성은 부모와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심리학의 기본적인 법칙 중의 하나이다. 개인이 어렸을 때는 주로 부모에 의해 사회화가 이루어지지만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는 또래집단이 중요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된다. 1.5/2세가 미국 주류사회문화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동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어떤 종류의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는가는 개인의 성장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인, 아시안과 같은 소수인종이 없는 백인 지역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백인 친구가 또래집단이 되지만, 인종적으로 혼재된 지역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의 또래집단이 만들어진다. 미국에서 출생해서 대학원 교육까지 받고 현재 한국에서 편집 및 교정일을 보고 있는 C(33세 남성)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한다.

나는 출생부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밀워키의 백인 서브버브에서 생활했다. 이 지역 주민의 95%는 백인이고 대부분 중상층에 속한다. 따라서 학교 학생들과 친구들은 거의 전부가 백인이었다. 고등학교 때 한 명의 입양아 한국학생이 있었으나 그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 나와 우리 식구는 어렸을 때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한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없었다.

반면 뉴욕시 전체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혼재된 곳으로 알려진 Elm Hurst에서 성장한 S는 학교와 집밖에서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인, 히스패닉, 그리고 한인 친구들과 어울렸다. 또한 그는 출생부터 한인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한인 친구들과 어울렸고 자기 부모 친구들의 한인 자녀들과 어울렸다.

이렇듯 1.5/2세가 어떤 종류의 또래집단과 어울리고 특별히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가는 개인의 성장지의 인종 및 민족구성과 한인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성장지가 인종/민족적으로 백인 지역이더라도 한인 교회에 출석하면 한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한인과 접촉하고 교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미국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앞서 소개한 C는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한인 친구와 사귄 기회가 없었고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신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미국화 되었다고 얘기한다.

1.5/2세의 친구관계는 개인의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거주지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점차 그가 연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한인 중심의 친구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체로 빠르면 고등학교, 늦게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전에 백인 중심의 친구관계는 한인 중심으로 아니면 최소한 아시안 중심의 친구관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앞서 소개한 C는 자신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안 학생들과의 교제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한인 학생과 친하게 되었다. 미국 학생들은 졸업반이 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공부 외에 사회활동과 친교활동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독립적이 된다. 이때 백인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비백인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백인여자들은 아시안 남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백인여자들을 데이트 상대로 생각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Asian American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인 학생들과 친하게 되었다.

현재 볼티모어에서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B(35세 남성)는 한국에서 출생하고 2살 때 미국으로 유학 온 아버지를 따라 왔는데, 가치관에서는 미국인 정체성이 강하지만 친구관계와 민족정체성에서는 한인 정체성이 강하다. 그는 민족성(ethnicity)이 어떻게 자신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John과 나는 친구가 아니었다. 나는 백인 학생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 친구들과) 술 마시거나 또는 그 외의 일들을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등생반(honor class)에 들었는데 John과 인도인 한 명이 이 반에 같이 들어와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내가 시카고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남학생 사교클럽(fraternity)에 가입하였다. 그 클럽 성원의 대부분은 백인이었지만 몇몇 인도인과 한인이 있었다. 그때 사귀던 인도인과 한인 친구들과는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낸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모두 백인 친구들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한인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어울리고, 공부를 같이 했다. 나는 민족성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배경, 관심거리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대단한 일은(great thing)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으러 로렌스 거리에 함께 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 음식을 원하는 것이 유대감을 형성한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에 함께 갔다. 그것이 유대감을 형성했다. 모든 한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을 갖고 있다. 미국 속담에 "Like likes like"라는 말이 있듯이 유사한 속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갖게 된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정이 생겨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안에 당신 자신이 투영되면 그런 생각이 더욱 들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랐을 때 늘 백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대학교에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의 밤(Korean culture nights) 등의 행사를 통해 나의 문화유산에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나는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 스케이트 팀과 양궁 팀이 잘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스케이트와 양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1.5/2세의 진실로 친한 친구가 한인인 이유에는 단지 인종적, 민족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사성과 친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인 친구끼리는 서로 공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리게 되는 것이다. 한인 다음으로는 중국인에 대해서 문화적 유사성, 친근성을 느끼기 때문에 1.5/2세는 중국인과 친구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한인과 중국인은 최근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라는 점, 교육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하다는 점 등이 서로 간에 문화적 동질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도 유교문화 전통이 강하다는 면에서 한인이 문화적 친근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일본인이 대부분 이민 3, 4세로 한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B(24세 여성)는 중학교에 편입하면서 자신의 친구관계가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로 형성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이민 와서 중학교 2학년에 편입했는데 학교 학생들에게는 백인이 많았으나 히스패닉, 아시안들이 있었고 한인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내가 영어가 서툴러서 한인 학생들과 교제하게 된 것 같다. 중

국 학생들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백인 학생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에서 동양 학생들은 동양 학생들과 어울리고 백인 학생들은 백인학생들과 잘 어울린다.

세대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1.5세대는 1.5세대끼리, 2세는 2세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두 세대는 상대방에게는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끼지만 자기들끼리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껴서 같은 세대끼리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 의식이 1.5세끼리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된다. 16살 때 이민 온 G(26세 여성)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모두 1.5세 한인이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학교 다닐 때 2세와 영어로 말하는 것이 싫었다. 같은 한국 사람하고 영어로 말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거리낌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국어로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1.5세가 말하기도 편하다. 같이 자랐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세가 제일 편하다.

2) 이성교제 및 결혼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5/2세의 친구관계에는 인종 및 민족성과 함께 세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종/민족성과 세대는 이성친구, 데이트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세, 특히 2세는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인종/민족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한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한인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은데, 이는 단지 부모가 원해서라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S는 현재 여자 친구가 있는데 그가 자신과 같은 2세를 데이트 상대자와 배우자로 선호하는 데는 세대보다 언어와 의사소

통,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영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대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좋겠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과 이해가 더욱 높을 것이다.

뉴욕의 한 대표적인 은행에서 IT 분석가로 일하는 G(24세 여성)는 한국에서 6살 때 이민 왔다. 그녀는 자신이 한인을 데이트 상대자로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인이 대하기가 편하다. 우리는 가족가치(family values)를 공유하고,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국말로 더 잘 말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영어로 더 잘 말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한인들끼리는 통한다. 결혼상대자로 한인을 선호하나 반드시 한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내가 한인과 결혼하는 것을 must로 생각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성공적인 코리안 아메리칸 사내를 만나지 못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찾는다. (웃음) 결혼 배우자로서 세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영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5/2세 여성 중에는 1.5세 또는 유학생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가져서 2세 또는 다른 아시안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4살 때 이민 온 J(19세 여성)는 현재 남자 친구가 없으나 데이트 상대자로 2세 한인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바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차이가 나고 Twinkie 또는 Fobby로 놀림 받으며 열등한 2류(inferior minor) 취급받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2살 때 이민 온 E(21세 여성)는 1.5세와 2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1.5세와 유학생은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자라나서 남성우월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아빠도 그런 측면이 있다. 반면 2세는 미숙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1.5세)는 힘들게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2세는 부모님 팬찮고 집 좋은 데서 컸으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있다. 내가 만난 2세가 있었는데 거부감이 느껴졌다. 백인들은 육체적인(physical) 측면이 있다. 미술을 이해하고 한국말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겠다. 한국애들은 엔지니어링과 프리 메드(pre-med, 의과대학 진학예비과정)를 하기 때문에 미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미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해 하고 물어본다. 미술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결혼상대자로는 미술을 이해하고 깨어 있는 사람.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배우려고 해야 한다. 반드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한인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 때문에 한인 남성보다 다른 아시안 남성을 데이트 상대자로 선호하는 경우는 밀워키에서 태어난 L(19세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지난번 남자친구는 대만계 중국인 아메리칸(Taiwanese American)이었다. 나는 한인 남성에 대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마초적이고 여성을 통제하려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남자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대만계 어머니는 자기 딸이 한인 남자와 데이트하면 크게 놀란다고 한다. 한인 남성들이 주먹으로 여자들의 얼굴을 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배우자로 아시안을 선호한다. 아시안은 백인이나 다른 인종에 비교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가 아시안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고 가능하면 한인과 결혼하기를 희망한다. 어머니는 남편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도덕성을 갖췄으면 아무 인종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5/2세 한인 여성은 한인 남성에 대해 권위적이고, 여성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 면접 과정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한인 여성이 한인 남성에 대해 갖는 선입견이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에 대해 갖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타인종/민족과의 국제결혼이 한인 여성들에게서 더욱 높은 것은 한인 여성이 한인 남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미한인의 국제결혼 패턴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인 여성들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원해서 백인 남성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반면 한인 남성들은 남성위주의 부부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다 순종적인 중국인 또는 일본인 여성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내에 혼인한 한인 여성들의 13.7%가 비한인과 혼인한 경우이고 한인 남성들의 족외혼 비율은 2.5%였다. 비한인과 혼인한 사람들 중 여성들의 61%는 백인 남성들과 혼인한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아시안 여성들과 혼인하였다(윤인진, 2004).

3) 부모-자녀관계

재미한인의 세대갈등(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문화적 차이,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민병갑, 1999; 배영, 1999; Chung, 1999). 갈등이 표출하는 주요 영역은 결혼 및 데이트 상대자 선정, 학업 성취에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준과 압력, 진학 및 진로 선정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아시안 자녀들과 비교해서 한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특별한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자주한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라고 사용하는 전략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부모에 대해서 애정과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윤인진, 2000).

세대갈등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상당수는 서로 간에 언어 및 문화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문화적 공감대(언어 및 가치관의 공유)가 적을수록 갈등은 심하게 된다. 민병갑(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관계가 더욱 친근해지고 세대갈등의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영어 실력이 높아지고 부모의 미국화가 높아진다고 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친근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노력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뉴욕에서 면접한 S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을 통해 자기 부모와 연결고리를 찾은 경우이다.

나의 부모는 1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생각하는 방식은 한국적이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이념과 가치관에서 전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연결해줄 고리가 없다. 내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사고방식, 즉 한국의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에 노출될수록 나는 부모와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내 큰 누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쓰려고도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아메리칸이라고 여기고 한인 친구도 없고 한국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의 한국 문화에의 노출은 최소한에 그친다. 그래서 그녀와 부모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갭이 있고 대화하기 어렵다. 나는 여태껏 부모와 영어로 대화하지 않고 한국어로 대화한다. 내가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면 이해 수준이 높아진다. 나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잘 알고 내 부모와 얘기하는 방식을 조절한다. 언어에는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게 되면 거기에는 한국문화가 들어 있다. 내가 한국어로 부모에게 말을 하면 한국문화에 민감해질 수 있다. 하지만 큰 누나는 한국어뿐만 아

나라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5살에 미국에 온 Y(20세 여성)는 한국에서 미군부대 내 초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한국에서 영어를 잘 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국어를 전체 과목 중에서 제일 못했고 지금도 어려운 한국어 단어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식 관습과 가치관을 강조하는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에 나와 부모 간에 뜻이 안 맞았었다. 내가 미국이 자유롭기만한 것으로 미국식 문화와 사고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였을 때 부모가 하는 것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미국에 살면서 왜 고지식하게 한국식으로 살아야 하는 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가 변하고 나도 변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는 미국에서 오래 살게 되니까 미국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내가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모는 내가 한국적인 것이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잘 헤아려 주는구나 생각하는데 여동생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다. 동생은 고등학교의 1.5세 남자들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기 때문에 안 맞고 2세 남자들은 자기들이 미국애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래서 일본인 또는 미국애들하고 어울리는데 그것에 대해 부모가 한인과 사귀라고 하니까 친구문제로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와 사이가 정말 안 좋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나이 들어서 이민 온 부모세대가 영어를 배워서 의사소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경우에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화는 언어에 녹아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화

하게 되면 부모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을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에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커지게 된다.

4. 언어사용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능력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나아가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민족정체성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를 하지 못하다고 해서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에 비교해서 못하는 사람의 민족정체성 수준이 낮다고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면접하는 과정에서 동일 1.5세대와 2세대 내에서도 한국어 능력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1.5세대 내에서는 한국어 능력(친구관계와 뒤에서 논의할 민족정체성 수준도 마찬가지로)에 개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2세대 내에서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즉 2세대 내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면접 결과 1.5/2세의 한국어 능력에서의 개인차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

이들 어른들의 영어능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2)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여부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한국말로 대화하거나, 직접 가르치거나, 또는 한글학교에 보내거나 한국어 강좌를 듣게 한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사용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영어를 잘하

게 할 목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금하게 하면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떨어진다.

3)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의 연령

한국에서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민 온 1.5세는 미국에서 출생한 2세와 같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서 온 1.5세는 한국어의 기초가 되어 있어 보다 심화된 한국어를 배우기가 더 쉽다.

4) 본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한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한글학교, 한국어 강좌,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강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한인 교회나 각종 한국학교에서 실시하는 주말 한글학교는 1.5/2세의 자발적 참여 동기가 약하고 부모들의 관심도 높지 않아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출생 순위

대체로 첫째 자녀는 이후의 자녀들에 비교해서 한국어 능력이 높다. 이는 1.5세의 경우 첫째 자녀가 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민 초기 부모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미국 문화에 동화가 덜 되어 자녀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쉽고, 첫째 자녀까지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높아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면서 둘째, 셋째 자녀에게 다소 방임적이 되고 한국어를 가르쳐야한다는 의식과 의지가 약해지면서 이들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소홀해지게 된다.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가 1.5/2세의 한국어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Queens에서 출생한 P(22세 남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그는 어

떻게 한국어를 할 줄 알게 되었는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인 고객들이 오면 이들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게 되었다. 주일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집중하지 못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나의 이중언어 능력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못하다. 내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한국어는 말하고 듣는 것은 곧잘 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잘 못한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이중언어 능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한인 의뢰인들을 통역해 주거나 그들의 영어 신청서를 대신해서 써 줄때 유용하게 쓰인다.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민 온 J(23세 남자)는 가치관 면에서는 한인 보다는 미국인에 가깝지만 한국어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강해서 한국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배운 경우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주말 한글학교에 다녔다. 대학교 때는 한국어 강좌를 듣기도 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내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인 정체성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부모와 대화할 때 90%는 한국어로 대화한다. 부모는 영어를 잘 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한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영어로 사용하다보니 한국어 능력이 떨어졌다. 내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장애가 된 것은 아니다. 내 영어실력은 좋은 편이다. 어쨌든 영어는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2살 때 유학생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온 B(35세 남자)는 한국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쓰거나 읽을 수는 없다. 그는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토요일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내려 했으나 내가 고집을 피워 가지 않았다. 나는 아메리칸인데 왜 내가 한글을 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토요일에 만화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더 자든지 하지 한글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나를 길렀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나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웠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100% 영어로 대화한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한다. 아버지의 영어실력은 뛰어나다. 주위 사람들이 그의 영어실력에 놀란다. 그는 CNN을 보고 미국 신문을 매일 읽는다.

부모가 자녀와 어떤 언어로 대화하는가는 부모의 직업, 계층, 미국문화에의 동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미국에서 거주한 연수가 길고, 미국문화에의 동화정도가 높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 부모는 자녀와 영어로 대화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A(29세 여성)가 그런 경우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A와 A의 남동생이 어렸을 때 집에서 한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한글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자녀들과 주로 영어로 대화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병원과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생활 중에 영어를 많이 써야 했고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려고 했다. 따라서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다. A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인학생 기독교 서클에 가입하여 한인 학생들과 어울리고 한국어 강좌를 3학기에

걸쳐 수강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녀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는 중간, 듣기는 중간 이상, 읽기와 쓰기는 중간 이하의 수준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녀의 남동생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특별한 생각과 노력이 없어서 한국어를 알아듣기는 해도 말하지는 못한다.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사람의 경우에는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 능력이 변수이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 능력이 모두 변수가 된다. 대체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일차언어(primary language)가 되고 영어가 이차언어가 된다. 이때 그가 어떤 언어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가에 따라 영어 능력에 개인차가 발생한다. 대체로 주위에 한인 학생이나 한인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영어 능력이 빠르게 향상하지만 주로 한인 학생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에는 영어 능력이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자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한인 부모는 일부러 한인 학생들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G(26세 여성)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1년 다니다가 이민 와서 상당히 늦게 미국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영어를 빨리 배운 경우에 속한다. 그녀는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미국에 와서 매릴랜드의 Thurmont라는 백인 거주지역에서 살았다. 이곳에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 전혀 없어서 학교에서 영어만 사용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국에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과목 중에서 제일 못한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나와 내 동생을 빼고는 소수민족이 없었다. 그곳에서 영어만을 하게 되니까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뉴욕에 간 한인 학생들보다 영어를 빨리 배웠다. 2~3년 지나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영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내가 소심해서 말을 잘

않고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다.

반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E(21세 여성)는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민 와서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동네가 시카고 근교 백인 서버브인 Glenview이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이민 온 학생들이 한 두 명밖에 안됐는데 7학년이 되면서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한인 학생들이 늘어났다. 수업시간에 한국말 하는 선생이 있었고 한국말 하는 한인 학생 때문에 영어가 빨리 안 늘었다. 내가 별도로 영어공부를 하려고 했다. 학교에서 ESL 교육을 4년간 받게 했는데 미국 애들하고 안 놀고 영어 못하는 한국애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어 오히려 영어가 늘지 않았다. 미국애들하고는 영어를 하지만 2세들과는 무시당할까봐 영어로 하지 않았다. 영어를 할 줄 알아도 2세 앞에서는 영어로 말이 안 나왔다. 대학에 와서 2세와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하게 되었다.

2세 중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데 비해 1.5세 중에는 개인차가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이중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1.5세의 언어사용 패턴에는 그들만의 혼성어(hybrid)가 자주 등장한다. 한국말 또는 영어로 말하는 도중에 번역하기 어려운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2살 때 미국에 온 E(21세 여성)는 1.5세의 언어 패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에게 편한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가 반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한다. 미국사람들하고 얘기하다보면 딸리는 단어가 있고(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고. 그

래서 우리는 우리를 반반이라고 항상 그런다. 예를 들어 “내가 drop-off 해 줄게”, “내가 pick-up 해 줄게” 하는 말들이다. 그런 말을 한국 사람에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국제바보(international idiot)라고 얘기한다. 한국말도 완벽하지 못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섞어 쓰는 국제바보라고 서로 장난을 친다. 1.5세는 서로 다 알아듣는다.

5. 1.5세 정체성

다양한 나이에 미국에 온 1.5세 응답자들을 면접하면서 기존의 1.5세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에 의구심이 생겼다. 허원무(Hurh, 1980)는 11~16세에 이민 온 사람을 1.5세로 정의한 반면, 김대영(Kim, 2001)은 Mollenkopf와 그의 동료들(Mollenkopf et al., 1997)의 세대정의를 사용하여 12세 이전에 온 사람을 1.5세로 정의하였다. 김대영의 세대 정의를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 후 6개월 만에 미국에 온 J(23세 남성)와 V(25세 남성)는 1.5세가 된다.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있어서 2세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1.5세의 연령 하한선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연령으로 상향 조절될 필요가 있다. 그 연령은 한국의 교육체계상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최소한 1년의 초등교육을 받은 만 7세가 될 것이다. 1.5세의 연령 상한선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만 18세까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사람들도 1.5세로 간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1980년에 한국일보 영문판 기자로 일하면서 1.5세(1.5 generation)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Charles Kim(현 KAC 전국회장)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이민 온 경우이고, 대표적인 1.5세 재미학자인 장태한 교수(Ethnic Studies, UC, Riverside)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UC Berkeley에서 인종문제를 연구하였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와서 군대에서 복무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경력을 갖고 있는 특이한 경우이다. 미군에서의 복무 경험과 학부 교육이 영어와 미국문화를 빨리 습득할 있는 기

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연령대에 속하는 1.5세 중에는 2세에 가까울 정도로 언어와 문화면에서 미국화가 된 사람이 있고 반대로 1세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Diaco(2004)가 하와이의 1.5세 한인들을 조사한 결과 1.5세의 조건으로 이중언어 능력, 이중문화적 속성, 집단의식을 제시한 것은 미국 본토의 1.5세 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도중에 이민 온 사람들이 1.5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G(26세 여성)는 1.5세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기에는 1.5세는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빠르면 국민학교까지, 늦어도 중고등학교 이전에 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은 1세다. 다시 말해 국민학교 후반이나 중고등학교 때 와서 한국말과 영어를 둘 다 잘 할 수 있는데 정신(mind)는 좀더 한국적인 사람. 그게 1.5세 인 것 같다. 1.5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1.5세 정신’이라고 부른다. (웃음)

1.5세는 자신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적 속성을 한편으로 이중의 자산으로 긍정적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부 인간(marginal man)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였다. 앞서 소개한 E가 자신과 같은 1.5세를 ‘반반’ 또는 ‘국제바보’로 부르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16살이 되어 미국에 온 D(34세 남성)는 1.5세가 문화적으로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자기비판을 한다. 1.5세는 양쪽 문화의 좋은 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한대로 한국인이 되었다고 미국인이 되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1.5세 정체성의 문제는 개방형 질문과 같은 것으로

그에 대한 정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핸디캡이 될 수 있다.

6. 민족정체성

1)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중정체성

1.5/2세의 민족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이라는 이중정체성이 다. 면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이중정체성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1.5세와 2세는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바가 다르다. 거의 모든 1.5세 응답자들은 한인 정체성이 미국인 정체성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이는 그들이 한국에서 출생한 것, 나이가 들어서 이민 와서 여전히 한국적 요소가 강한 것,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욱 편하고 익숙한 것들에 기인한다. 반면 2세는 미국에서 출생한 것, 미국 문화에 동화되고 익숙한 것, 미국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는 것, 한국어를 전혀 못하거나 또는 잘 못하는 것을 이유로 미국인 정체성을 더욱 크고 중요한 자아의 부분으로 생각한다. 6살 때 이민 온 G(24세 여성)는 자신을 1.5세로 정의하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문화와 미국 문화를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이다.

나의 가치관은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 혼합된 것이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나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문화는 주도성(initiative), 활동성(active), 도전(challenge) 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한국문화는 겸손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중시한다. 나 같이 교육받은 여성에게 평등(equality)은 중요하다. 나는 한국에서 비서가 커피 시중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남녀평등은 인종평등만큼 나에게 중요하다. 동시에 나는 내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대학에서 풍물패에 참

여하기도 하고 선배들로부터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는 자신이 한인 또는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남들이 보기에 한인 또는 아시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키 작은 아시안 여자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2살 때 이민 온 B는 언어와 의식, 생활면에서 실질적으로 2세이며 미국인에 가깝지만 한국적인 측면을 중요시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은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반영한다.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이 나라(미국)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나라의 부분이고 이 나라가 나에게 부여하는 기회를 이용해왔다. 나는 또한 내가 한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은 나의 (의식의) 중심에 있다.

위에서 소개한 G와 B의 경험을 통해서 1.5/2세는 자신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들로부터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한인 또는 아시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감추려하지 않고 한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2) 한국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의 비교

1.5/2세가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논할 때 필연적으로 미국적 가치와 한국적 가치를 비교하게 된다. 이들의 시각에서 미국적 가치는 독립성, 자유, 주도성(initiative)의 장점이 있지만 방종과 나태와 같은 단점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적 가치는 성실과 근면, 가족 중시, 부모와 노인 공경, 교육 중시의 덕목을 갖지만 가부장적 가치관과 질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앞서 소개한 G는 한인들이 교육

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한국인의 교육열과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한국문화의 장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훈련하고 밀고 나가는(push) 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공부에 집중하고 열심히 한 것은 부모의 생활방식을 보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L(18세 여성)은 미국문화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아시안 남자 대학생들이 처음 데이트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귀어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는 달리 백인 남자 대학생들은 좋은 시간을 갖는데 더욱 관심이 크고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적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1.5/2세도 있다. 특히 미국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한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16살 때 미국에 온 G(26세 여성)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동료 한인 직원들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자신이 한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겼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어저께도 일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같이 일하는 한국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할 때 주위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말하면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하다. 한국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이 한국사람에게는 이상하지 않더라도 외국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고 무례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외국사람들과 더 많이 친구로 지낸다. 외국 동료들은 한국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나도 할말이 없다. 내 주위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새끼까지 다 잡는다. 내가 쓰레기 줍고 새끼는 나주라고 그린다. 한국사람들은 세심한 데 무심한 것 같다.

1.5/2세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재일한인의 在日(Zainichi) 정체성과 같이 미국에 정주한다는 의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고,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며, 그에 따라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15살에 미국에 와서 현재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G는 처음에 한국이 그렇게 좋고 미국이 싫던 것이 성장하면서 점차 미국이 자신이 살 곳이고 한국은 정착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한국을 3번 방문했다. 처음에 방문한 것은 1990년대이고 가장 최근에는 1998년에 방문해서 1달 정도 머물렀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적응을 잘 못했고 한국이 그리웠다.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울었다. 미국에 오는 것이 너무 싫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한국에 갔을 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한국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친구들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미국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지옥행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이 너무 끔찍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문을 하고 미국으로 올 때는 느낌이 달랐다. 친구들도 모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유학을 나가서 굉장히 달라졌다. 한국을 떠나올 때 서글퍼서 조금 울기는 했지만 내가 이곳에 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다. 갔다 와서는 한국에 대해 정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곳(미국)이 내가 살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한국은 내가 어렸을 때의 한국이다.

3) 정주의식

미국이 정주할 곳이라는 의식이 자리잡아가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편에서 보게 된다. 한국에서의 반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G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얘기한다.

한국에서의 반미주의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에서 미군 장갑차가 중학생 효순과 미선을 쳐 죽였을 때 교회에서 그

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와 내 친구 I(26세 2세 여성)는 미국을 보호하는 편이었고 나머지는 미국을 반대하는 편이었다. (미군이)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미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그런데 몇 가지 일로 “재내는 우리와 안 된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욕한다. 이런 것은 미국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마찬가지로 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사람이니까 누가 미국 욕하는 것이 안 좋다. 한국 욕하는 것도 안 좋지만. 월드컵 경기를 일본에서 봤는데 한국사람들이 미국을 막 욕하는데 나는 옆에서 막 화가 났다. 그냥 게임인데. 물론 나도 한국을 응원하기는 했지만 무조건 “미국은 안 된다”, “싫다” 그런 마인드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나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다.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니다. 한국사람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에 사니까, 내가 이곳에서 얻는 것도 있고 물론 피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나라에 대한 그것(애국심) 많다.

4)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충돌

앞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은 항상 조화롭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돌하고 위계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에게 한국문화,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문화와 미국 주류사회에 비교해서 주변적이고 이류로 취급되기 쉽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없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자라난 2세의 경우에 ‘한국적인 것(Koreanness)’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기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앞서 소개한 G는 2세가 그렇게 하는 것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내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 온 친구들을 보면 한국에 대해 들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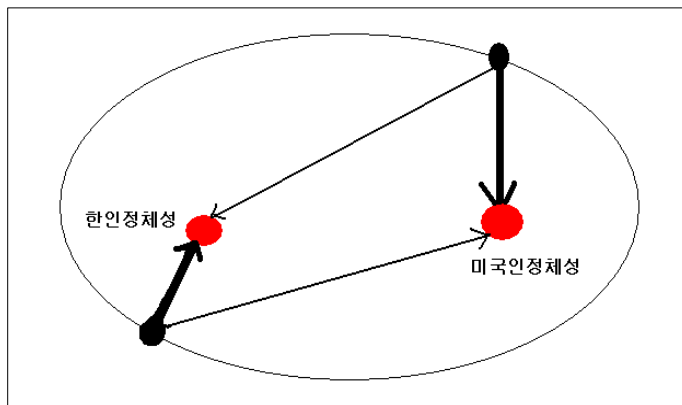
있는 것이 한국 드라마와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이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과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애들의 인식이 안 좋게 형성된다. 2세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치를 떨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도 보았다. 그런데 그랬던 애들이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는 완전히 바뀌지는 것을 보았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와서 180도 변하는 것을 보았다.

5)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면접한 1.5/2세 응답자 중에는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이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한인 정체성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미국인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은 베리(Berry, 1987) 이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민자들의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설명할 때 민족문화(전통) 유지와 주류사회 참여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진보한 설명으로 평가될 수 있다.⁵⁾ 이 새로운 설명에 따르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핵(또는 중심)이 있는데, 개인은 이 두 개의 핵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마치 행성과 같은 존재이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개인은 어떤 때는 한인 정체성이 보다 적합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반대로 미국

5) 베리(Berry, 1987)는 소수민족집단 이민자들의 문화변용이 “다른 인종과 민족집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통합(integration)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류집단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고립(isolation)은 이민자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이들은 보통 차이나타운과 같은 민족 엔클레이브(enclave, 소수의 이문화 집단의 거주지)에 격리되어 산다. 끝으로 주변화(marginality)는 주류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도 잃어버리는 경우로서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하여 기성질서에 반항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인 정체성이 더욱 적합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인 교회에서 한인 교인들과 친교할 때 그는 한인 정체성을 갖고 말하고 행동한다. 반면 그가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직장에서 일할 때에는 미국인 정체성을 갖고 행동한다. 그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두 개의 정체성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어느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하나의 정체성에 비교해서 적절하고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 모델에서 한 개인의 소속감과 애착심은 한 민족 또는 문화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민족 또는 문화집단에도 주어진다. 단지 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정체감은 상황과 주제에 따라 현저해지고 강해질 뿐이다.



[그림 V-1]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미국에서 출생한 I(26세 여성)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는 미국인으로 또 어떤 때는 한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녀가 1.5세와 1세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인 교회에 다닐 때는 한인으로 느끼지만 애국심과 사는 방식 면에서는 미국인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한인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A(21세 남자)는 자신은 한인을 만날 때는 한인으로 미국인을 만날 때는 미국인으로 자신의 말하는 방식과 몸짓을 조절한다고 한다.

나는 한인을 대할 때만이 한인이다. 다른 한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데로 그에게 공손하고, 격식을 갖춰,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미국인을 대할 때는 미국인이 된다. 미국인과는 편하게, 허물없이 말을 한다. 내가 즐겨가는 학생회관 지하의 당구장에는 한 나이 든 학생이 있는데 나는 그를 ‘노인(old ma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빈정거리는 투로 서로 농담을 하며 지낸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한인에게는 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상대하는 사람에 맞춰 말을 하거나 몸짓을 사용한다.

6) 나비효과

앞서 보았듯이 한 가족 내의 자녀들 간에 한국어 능력, 언어사용 패턴, 친구관계, 민족정체성과 애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 간에 연령차가 불과 1~2살 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친구를 사귀고 한국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반면 막내는 한국어를 못하고 미국 친구들만 사귀고 한국적인 것을 싫어하고 기피할 정도로 지극히 미국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각자가 한국과 한국적인 것(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해 가진 태도, 성향, 친근성 등이 점차 확대 증폭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차이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자연과학, 특히 카오스 시스템에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또는 초기성 민감도라고 불린다. 즉 초기 단계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점점 증폭되어서 거대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칭한다. 한국어 능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렸을 때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녀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기초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는 부모가 시청하는 한국 TV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는 한인 교회에 다니고, 한인 친구와 사귀고 친구들과 한국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글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TV 드라마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한인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한인 친구를 사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적인 것과는 담을 쌓고 대신 미국인과 교제하고 미국 주류문화만을 접하면서 미국화 되기가 쉽다. 이렇듯 초기에는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좁혀질 수 없는 큰 차이로 발전하게 된다.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S(26세 여성)는 자기보다 2살 어린 남동생과 자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로 부모와 얘기했고 한국문화를 좋아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같이 보았고 그것들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동생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동생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하고 미국으로 왔지만 완전히 2세와 같다. 동생은 한국어도 모르고 사고방식도 미국사람과 같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모두 미국인이었는데 이들이 같은 대학교에 같이 가서 친구로 지냈다. 동생은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인을 만날 기회도 적다. 동생은 쉬운 한국어는 알아들어 부모가 말을 하면 한국어로 짧게 얘기한다.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제 부모는 성인이 됐으니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 같다. 우리 식구가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친척이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 한국으로 나오라고 해도 가지 않았다. 동생은 미국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모는 동생이 워낙 미국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 한국에 사는 여자와 결혼시키면 안돼는 것을 아니까. 동생은 자신을 아메리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도 한 집안에서 자녀들이 다른 것이 신기하다고 얘기한다.

위의 사례는 한 개인의 생애 초기의 태도, 능력, 성향이 이후의 관심, 학습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만약 우리가 재외동포교육진흥의 차원에서 1.5/2세의 한국어 능력,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종교와 교회

1) 사회관계의 기반

이민 1세와 마찬가지로 1.5/2세에 있어서 교회는 사회관계의 기반이고 한인 커뮤니티 참여의 도관(conduit)이다. 학교에서 한인 학생 또는 친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한인교회를 통해 한인과 교제하고 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연결된다. 대다수의 1.5/2세에게 한인 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인들의 결사체 또는 조직이다. 앞서 소개했던 S는 한인 교회를 통해 한인 친구를 사귀게 된 경우이다.

나는 중고등학교까지 한국친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내성적이라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한국학생하고 만나자고 하지도 못했고, 그때 교회도 안다니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과 계속 지내다가, 대학교에 와서 처음 부모님과 떨어졌다. 부모와 떨어져서 첫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때 한인대학선교(Korean Campus Ministry)를 홍보하는 선배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한국사람인지 외모로만 보고 혹시 한국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한번 와보라고, 한국 사람도 많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갔었다. 그곳은 기독교한국 학생모임 같은 것 이었는데, 나는 이전에 교회를 안 다녔다.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봤는데, 나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학기 초에 신입생들하고 친해졌는데 그들을 따라 모임에 계속 나갔다. 그들을 통해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계속 나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후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갔다. 그

래서 대학교에 와서는 내 주위에는 미국 친구들은 없고 1.5세, 2세 친구들만 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에 와서 연락도 끊기고. 서먹서먹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대학교에 와서 만난 1.5세, 2세 친구들이다.

2) 기독교에의 몰입

종교, 특히 기독교는 1.5/2세에게 중요한 정체성과 사회관계의 기반이다. 특별히 한인 1.5/2세 중에는 다른 인종/민족의 동일 세대에 비교해서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한인, 아시안, 소수인종으로서의 주변성과 한계성을 극복하는 정신적 대응기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만 피부색과 부모의 인종/민족 특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의 백인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자긍심이 떨어질 때 종교는 자신에게 긍정적 자아의식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사회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5/2세 중에는 자신의 생애 목표와 경력을 설계할 때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5/2세의 종교적 몰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고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회관계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고, 자연스럽게 교우관계가 기독교인들과 맺어지고, 대학에 가서 한인 기독교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가 강화된다. 더욱이 한인들의 기독교 성향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몰입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1.5/2세의 종교적 몰입은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인종, 민족문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해 1.5/2세 중에는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성공에 몰입하는 소시민은 많아도 한인 커뮤니티, 인종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M(24세 여성)은 장래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보다 크리스천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크리스천 가족에서 태어났고 교회 중고등부(youth group)와 대학에 가서 신앙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현재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성경공부를 이끌고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꿈이 의료선교였는데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해군이 의과대학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해군에서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게 되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정글에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한인 친구들이 없었다. 대신 한인교회에서 한인 친구들을 사귀었다. 한인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역할이다. 이것은 반드시 문화적 센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중생활(double life)을 한 것 같다. 학교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내 친한 친구들은 한인인데 그들 모두 크리스천이다. 나에게서는 한인보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친구의 조건이다. 내가 성장할 때 한인 정체성과 크리스천 정체성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크리스천이면 그의 인종, 출신국과 상관없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는 대학교와 대학원 다닐 때 아시안 아메리칸 연합(Asian American Union)이라고 하는 학생조직에 참가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아시안 아메리칸의 의식과 행동보다는 선교가 더욱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선교에 전념하고자 했고 대학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독교 신앙과 성공 지향성의 결합

기독교에 몰입하는 1.5/2세 중에는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성공 지향성(success orientation)이 결합하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이는 막스 베버

(Weber, 1992)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서구 자본주의 발전이 정당한 물질적 성공을 인정한 개신교의 윤리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1.5/2세 중에는 자신들의 성공, 예를 들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전문직을 갖고, 소득을 많이 버는 것들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5살에 미국에 온 G(27세 여성)는 지금 밝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 교회는 특히 학교에 있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말에 도전 받아 공부를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은 크리스천이나 비크리스천을 떠나서 성공에 대한 개념이 한국사람과 크게 다른 것 같다. 한국인, 특히 이민 온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이 사회에 진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변호사가 되고, 누려볼 만한 파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재는 야망이 없지” 할 정도로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복합해서 생각한다.

8. 교육, 취업, 경력개발

이민 1세가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신분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1.5/2세는 부모의 후원 하에 주류사회의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재미한인의 세대간 직업이동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전문직 종사를 목표로 1.5/2

세는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법학, 의학, 약학,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등에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공 선택에는 부모의 영향도 크지만 본인 자신이 졸업 후 취업 가능성, 고용 안정성, 고소득, 사회적 지위, 여가 활동, 자기개발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1세와 1.5/2세의 직업선택에서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LA에서 한인 권익단체에서 일을 하는 K는 1세의 직업관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1.5/2세는 삶의 질과 여가라고 비교한다.

1세대는 생존세대(survival generation)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 좌우익 대립,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의 산전수전을 경험한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들은 생존의 귀재들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르고의 구분 없이 진흙탕에서 싸워왔다. 현재 한인사회의 문제는 1세의 문제이다. 1세는 미국이라는 정글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2세는 1세의 그런 동기가 없다. 1세는 잡초 같아 밟히면 일어난다. 그러나 2세는 밟히면 밟힌다. 또한 2세는 과잉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일과 직업만을 생각하지 공익개념이 없다. 이런 면에서 2세는 무방향 세대(directionless generation)이다. 이민 1세가 사기를 치면 수백만 달러 수준이지만 2세가 사기를 치면 수천만 달러이다. (LA에 지역에서 대형사기를 친 2세 2명을 거론했다.) 2세는 한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1992년의 4.29폭동은 그런 면에서 전환점이었다. 자신들의 부모가 당하고 있을 때 팔 걷어붙이고 나왔지만 그것이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3세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다. 2세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3세는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1.5세는 교량세대(bridge generation)이다. 이들은 1세와 2세 사이를 연결한다.

1.5/2세가 전공을 선택하고 경력을 개발할 때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자신이 한인, 아시안,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한계를 지각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덜 받고 안정된 수입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 기술직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6

살 때 이민 온 G(24세 여성)는 자신이 왜 컴퓨터 과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게 됐는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 처음에 대학에 진학해서는 수학이 싫었으나 졸업 후 직업의 안정성과 수입을 고려해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1학년 때는 6개의 다른 전공을 생각했으나 2학년 때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정했다.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MIT와 같은 명문대학의 가치와 영향력을 알지 못했으나 직장 생활을 하고 승진을 기대하면서 명문대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일하는 은행의 증권거래업자(trader)들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면 증권거래업자가 될 수 없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은 한 단계 위의 이점을 제공한다.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중요하다. 현재 나는 Lehman Brothers 은행의 정보 분석가(IT analyst)로 일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근무했는데 연봉은 8만 달러 정도인데 연말에 받는 보너스를 합치면 9만 불 이상일 것이다. 싱글로서는 괜찮은 수입이다.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J(19세 여성)는 현재 대학에서 의예과(pre-med) 과정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의학을 전공하려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자기 주위에 의사들이 많고 고등학교 때 의학을 권장해서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자기 주관 없이 남들이 좋게 생각하는 전공을 선택하였다가 도중에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1.5/2세 중에 많이 있다.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S는 학부에서 처음에는 생화학을 전공했으나 자신이 과학과 수학을 잘 못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영어영문학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아서 잘 했다. 하지만 영어영문학은 인문학이라 지금 자신이 하는 일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앞서 부모-자녀관계를 논할 때 한인 이민가족의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 중

의 하나가 진학 및 진로 선정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 충돌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안정되고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의대, 법대, 경영대, 공대 등에 진학하기 원하는데 자녀는 역사학, 인류학, 음악, 예술 등을 전공하고자 할 때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다. 미국에 15살 때 이민 온 Y(20세 여성)는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전공 선택을 가지고 아버지와 갈등을 벌이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경우이다.

나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고등학교 때 음악으로 대학에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내가 경영학을 하기를 원해서 경영학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 오기 전에 부모가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고서 음악해서 뭐 하겠냐 생각이 들어 경영학으로 지원해서 합격이 되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음악으로 전공을 바꿀 생각이다. 아버지는 내가 전공을 바꾼다고 하니 안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어느 것을 하든 상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한국에서 피아노 학습을 엄격하게 해서 그런지 다시 시작한 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열심히 해보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5/2세가 전공과 직업 선택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뚜렷하지만 1세에 비교해서 선택의 폭은 훨씬 넓고 자기의 적성과 취향을 추구하는 정도는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 12살에 이민 온 E(21세 여성)는 자신이 왜 회화를 전공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가 주내의 대학(in-state university)을 가기를 원해 이곳 대학에 오게 되었다. 한인 학생들은 순수미술을 하지 않는다. 돈을 못 버니까 부모가 순수미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도 내가 페인팅하는 것을 안 좋아 하신다. 남들은 내가 그래픽 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과를 못

들어가서 순수미술과에 진학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순수미술을 하고 싶다. 순수미술과에는 나와 2세 한인이 전부이다. 나는 앞으로 비디오 예술 기술(video-art-technology)을 하고 싶다. 이것은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에서 발전된 예술이다.

1.5세에 비교해서 2세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이전에 한인들이 꺼리고 기피해온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 가지 분야가 정치인데, 2세 중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한인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A는 한인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변호사가 되고 그 이후에 공직 또는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Susan Lee(중국어 미국인으로 매릴랜드 주의회 하원의원)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 나도 보통사람이 되기보다는 역사책에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이 사회에서 생존(survive)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 땅에서 번창(thrive)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 내가 한인학생회 회장이 된 것은 나의 리더십을 실천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A는 많은 수의 1.5/2세가 명문대학에 가고, 전문직이 되고, 그들이 이룩한 것에 만족하고 커뮤니티, 정치 등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코리안 아메리칸은 그런 이슈들에 시간을 들여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정치보다 소득을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기울어져있고, 정치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일종의 정치적 냉담이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그들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정치에 잘 관여하지 않는 것은 뉴스 등에서 백인들만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2세도 백인들이 미국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가 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세가 1세와 1.5세에 비교해서 보다 폭넓은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시민권자라는 인식, 영어능력과 미국사회문화에 대한 지식, 부모의 경제적 후원 하에 보다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이들이 단지 경제적 성공만 가지고는 미국사회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치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A와 같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들, 예를 들어 정치, 군대, 예술, 언론, 오락 등의 분야로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9. 모국과의 관계와 모국에 건의사항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1.5/2세는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훨씬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친척 및 친지 방문, 유학 및 어학 연수, 단기 및 장기 취업 등의 목적으로 직접 방문하기고 하고, 이메일 또는 싸이월드와 같은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모국과 연계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24시간 한국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모국 소식과 문화예술에 향시 접촉하고 있다. 1.5/2세들이 한국 TV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고 그것들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에 능숙한 1.5/2세들은 과거에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한국 영화 또는 TV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료로 향시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다. 그리고 1.5/2세들은 한국의 대중음악이 미국의 팝송보다 훨씬 친근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 보아, HOT, 신화, 동방신기와 같은 한국의 십대 연예인들을 잘 알고 좋아한다. 1.5/2세가 디지털, 인터넷 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모국과 재외동포 차세대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크다.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살다 온 1.5세 중에 더욱 많다. 14살 때 미국에 온 B(24세 여성)는 한국신문도 가끔 읽고 한국 TV 드라마를 즐겨 보고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한국음악을 즐겨 듣는다. 그러나 싸이월드(cyworld)라는 한국의 인기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의 친구들과 교제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소개해서 싸이월드를 알게 됐다. 싸이월드에 내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방문해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한다. 나도 내 친구 싸이월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기도 한다. 싸이월에 있는 친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내 친구 홈페이지를 알게 되서 클릭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파도탄다’라고 한다. 싸이월드는 마치 눈덩이(snow balling)처럼 몰랐던 사람들과 연계하게 해준다. 나는 사촌동생과 오빠들과 싸이월드를 통해서 미리 소식을 주고받는다. 부모와 친척들이 전화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기 이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헤드셋트를 통해 인터넷 전화를 한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특히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한인 2세는 www.xanga.com을 사용한다.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해외거주자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해외거주자 등록증을 입력하도록 해서 재외동포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B(26세 여성)도 싸이월드를 통해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우이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싸이월드를 한다고 한다. 2세 중에도 간혹 싸이월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한다. 미국에도 블로그(Blog)와 쟁가(Xanga)와 같은 싸이월드 비슷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국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싸이월드는 매우 특별한 인터넷 커뮤니티이고, 이는 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회심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5/2세는 모국에 대해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거나 취업하겠다는 사람들은 있고, 또한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미국회사에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사회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식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1.5/2세가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에 이들은 주로 영어와 관련된 분야, 예를 들어 대학, 사설어학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또는 신문사,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영문 작성, 교정, 편집을 맡아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 회계사, 컨설팅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직 1.5/2세는 한국에 있는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수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유승준, 한고은, 박준형, 제이, 슈, 차인표, 김윤진, 앤디, 에릭 등 동포 출신 연예인들도 한국의 대중문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면접한 1.5/2세 중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단기간의 한국 방문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사람

들은 있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사회문화에 동화되고 한국식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앞서 소개한 B(26세 여성)는 한국에서 일을 할 뻔 했는데 포기하고 현재 컴퓨터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한국대사관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알게 되었다. 지원해서 합격했고 비자도 받고 비행기표만 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에 가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1~2년 있다가 미국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첫발을 미국에서 들여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B의 사례를 통해 1.5/2세는 미국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취업은 일시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직장도 영어 교육 관련한 것에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은 미국에서의 구직활동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잘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이 1.5/2세가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주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1.5/2세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다만 모국과의 정서적 연대와 애착심을 갖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모국 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1.5/2세가 단기간의 모국 방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미국에서 난 L(21세 여성)은 7살 때 한국에 왔었는데 곧 한국에 다시 가려고 한다. 그녀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주위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만 왔는데도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학습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한국에 대해 배우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1.5/2세의 모국 방문과 연수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한국의 대학교 또는 한국어학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그저 놀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문화체험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동포 차세대의 모국 방문과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많은 수의 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에 대해 친근함과 애정을 갖게 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워 한민족 정체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한국과 관련되는 활동을 하게 되고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모국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동포 차세대의 시각과 욕구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현재 북미한인사회는 세대교체라는 중요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간 1.5세와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들의 한인사회와 북미 주류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2세의 특성과 의식을 연구하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 표본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정량적·정성적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차 통계자료로는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와 2001년 캐나다 인구센서스 통계와 각 인구센서스의 5퍼센트 표본자료(Public Use Microdata Sample)를 사용하여 차세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북미 주류사회의 다방면 분야의 진출 현황과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표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차세대의 교우관계,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자녀관계, 종교, 언어 상황, 민족정체성, 모국과의 연대성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런 종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차세대가 북미사회에서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재외동포를 1세, 1.5세, 2세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위를 비교하고 한인 세대를 다른 아시안 집단의 동일 세대와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북미동포 1.5세와 2세는 10~20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1.5세와 2세는 1세에 비교해서 전문직, 관

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자영업보다는 사기업의 고용인 또는 공공직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세에 비해서 자영업이나 또는 한인 사업체의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민족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일 세대의 다른 아시안 민족집단과 비교하면 거주국 정착의 역사가 긴 중국인과 일본인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한인과 같이 최근 이민자 집단인 인도인과 베트남인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인 1.5세와 2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인 1.5세와 2세의 아직 어린 연령구조와 이들의 영어능력, 현지 교육, 그리고 주류사회문화에의 동화 정도를 감안하면 이들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자영업과 민족경제로부터 이탈하고 그 대신에 주류 사회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여러 도시들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2세의 의식과 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하였다. 한인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국 방문, 유학 및 어학 연수, 이메일 또는 싸이월드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국과 가깝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청소년의 의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주의식이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주류사회 문화에 동화되어 한국식의 문화와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모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은 장기간 살거나 취업하겠다는 사람은 적다.

한인 청소년들은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정부가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단기 방문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포 차세대의 모국 방문과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1.5/2세의 친구관계, 이성교제 및 결혼, 부모-자녀관계, 민족정체성, 언어사용, 종교 및 교회활동, 교육 및 취업, 모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친구관계와 관련하여 1.5/2세가 어떤 종류의 또래집단과 어울리고 특별히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가는 개인의 성장지의 인종 및 민족구성과 한인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교회 출석은 성장지의 인종/민족 구성과 상관없이 한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한인과 접촉하고 교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미국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1.5/2세의 친구관계는 개인의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거주지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점차 그가 연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한인 중심의 친구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체로 빠르면 고등학교, 늦게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전에 백인 중심의 친구관계는 한인 중심으로 아니면 최소한 아시안 중심의 친구관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민족성은 1.5/2세의 친구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지 인종적, 민족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사성과 친근성이 한인간의 친구관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한인 다음으로는 중국인에 대해서 문화적 유사성, 친근성을 느끼기 때문에 1.5/2세는 중국인과 친구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한인과 중국인은 최근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라는 점, 교육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유교문화 전통이 강하다는 점 등이 서로 간에 문화적 동질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1.5세대는 1.5세대끼리, 2세는 2세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두 세대는 상대방에게는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끼지만 자기들끼리는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껴서 같은 세대끼리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인종/민족성과 세대는 이성친구, 데이트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한다. 1.5세, 특히 2세는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인종/민족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한인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한인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는데, 이는 단지 부모가 원해서라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5/2세 여성 중에는 1.5세 또는 유학생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가져서 2세 또는 다른 아시안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 여성들이 한인 남성에게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타인종, 특히 백인 남성들과 혼인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2세는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부모세대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세대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조사 결과 자녀가 한국어로 부모와 대화하고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경우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서적 교감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의사소통과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 능력에는 개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의 개인차는 (1)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 (2) 부모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여부, (3)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의 연령, (4) 본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5) 출생 순위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가 1.5/2세의 한국어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5/2세의 민족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코리안 캐나다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 대부분의 1.5/2세는 자신들의 이중정체성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1.5세와 2세는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바가 다르다. 1.5세가 한인 정체성이 미국인 정체성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2세는 미국인 정체성을 더욱 크고 중요한 자아의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5/2세는 공히 자신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들로부터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한인 또는 아시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1.5/2세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재일한인의 在日(Zainichi) 정체성과 같이 미국에 정주한다는 의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고,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며, 그에 따라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미국이 정주할 곳이라는 의식이 자리잡아가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에서 보게 된다. 이는 1.5세보다 2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은 항상 조화롭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돌하고 위계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에게 한국문화,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문화와 미국 주류사회에 비교해서 주변적이고 이류로 취급되기 쉽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없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자라난 2세의 경우에 ‘한국적인 것(Koreanness)’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기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1.5/2세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이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둘 중의 하나의 정체성이 현저해지고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민족정체성 다핵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 따르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핵(또는 중심)이 있는데, 개인은 이 두 개의 핵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마치 행성과 같은 존재이다. 그가 한인 정체성이 보다 적합한 상황에 처하면 한인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반대로 미국인 정체성이 더욱 적합한 상황에 처하면 미국인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한 가족 내의 자녀들 간에 한국어 능력, 언어사용 패턴, 친구관계, 민족정체성과 애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각자가 한국과 한국적인 것(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해 가진 태도, 성향, 친근성 등이 점차 확대 증폭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차이로 발전하게 된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자녀가 어렸을 때 한국

과 한국적인 것(Koreanness, 예를 들어,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갖는 태도와 성향이 이후의 사회관계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의 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1.5/2세에 있어서 사회관계의 기반이고 한인 커뮤니티 참여의 도관(conduit)이다. 학교에서 한인 학생 또는 친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한인교회를 통해 한인과 교제하고 이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연결된다. 종교, 특히 기독교는 1.5/2세에게 중요한 정체성과 사회관계의 기반이다. 특별히 한인 1.5/2세 중에는 다른 인종/민족의 동일 세대에 비교해서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1.5/2세 중에는 자신의 생애 목표와 경력을 설계할 때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5/2세의 종교적 몰입은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 인종, 민족문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해 1.5/2세 중에는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성공에 몰입하는 소시민은 많아도 한인 커뮤니티, 인종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다.

교육과 취업과 관련하여 이민 1세가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신분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1.5/2세는 부모의 후원 하에 주류사회의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북미동포의 세대 간 직업이동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전문직 종사를 목표로 1.5/2세는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법학, 의학, 약학,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등에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공 선택에는 부모의 영향도 크지만 본인 자신이 졸업 후 취업 가능성, 고용 안정성, 고소득, 사회적 지위, 여가 활동, 자기개발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1.5/2세가 전공과 직업 선택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뚜렷하지만 1세에 비교해서 선택의 폭은 훨씬 넓

고 자기의 적성과 취향을 추구하는 정도는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 1.5세에 비교해서 2세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이전에 한인들이 꺼리고 기피해 온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세가 1세와 1.5세에 비교해서 보다 폭넓은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시민권자라는 인식, 영어능력과 주류사회문화에 대한 지식, 부모의 경제적 후원 하에 보다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이들이 단지 경제적 성공만 가지고는 주류사회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치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 1세가 많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들, 예를 들어 정치, 군대, 예술, 언론, 오락 등의 분야로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낼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2. 정책 제언

재외동포 차세대의 대다수는 거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접근은 불필요한 정치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교육문화적 접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역량 있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실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 몫은 재외동포 자신과 거주국 정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는, 재외동포 차세대가 역량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모국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기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들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지원과 한민족 네트워크의 강화와 상호교류와 협력관계의 발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의 모국 방문, 모국에서의 유학, 연수, 취업 및 기

타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모국 방문과 한국문화 및 정체성 프로그램의 개선

1.5/2세는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포 차세대의 모국 방문과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세대가 한국과 한국적인 것에 대해 갖는 태도와 지향성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언론, 교회 등을 대상으로 현대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균형 있고 긍정적인 최신 정보와 시각을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적극 전개해야 한다.

모국 방문 및 모국 대학에서의 유학 및 연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부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처럼 모국을 방문해서 모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였으나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망하고 돌아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 방문과 모국문화체험이 동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를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민족교육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모국어 구사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울판’이라고 하는 민족교육 및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다양한 수준과 지역의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김남희 외, 2005). 이 울판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인(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영토 안과 밖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도 지속적인 연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도 출판에 버금가는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 차세대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추진 주체로는 한국학진흥연구원과 같은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할 수 있는 한국역사, 한국문화, 한국인의 사상 등에 관련된 민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 구성방식으로는 기본 내용의 골격을 만들어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즉, 하루 프로그램, 2~3일 프로그램, 1주일 프로그램, 1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재 및 교구, 시청각 자료, 지도용 지침서 등을 전체 하나의 세트로 개발한다. 활용방안으로는 재외동포가 많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언어를 중심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한국관련 기관, 한국기업의 해외 사무소, 한국문화원, 한글교육기관, 교민회관, 국외 한국인 종교기관, 한국인 관련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한다. 프로그램 교육자 양성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 교육자, 한글학교 및 한국문화원 등 관계자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수자 혹은 진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돌아가 이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거나 다시 이 프로그램의 교수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한국어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무료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국외에서 한글교육과정이나 한국어 관련자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부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제공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일부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교육과정이 있으나, 재외동포 차세대가 경제적 부담없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2) 모국 유학 기회의 확대

현재 선진국들은 국적과 국경을 초월한 인재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강대국은 외국인 중에 고급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완화하였고,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등 작은 나라들은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하여 국제적 인적자원의 확충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서 모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포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하고서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역유학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를 선발해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게 하고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혈통을 공유하는 재외동포 전문인력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하게 되면 사회문화적 적응 및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3) 차세대 지도자 육성

재외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함께 앞으로는 정치, 언론,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동포 차세대 지도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을 육성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차세대 리더 포럼 활성화, 모국 유학 및 연수 기회 확대와 장학금 확충,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차세대 집회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차세대 조직 지원, 차세대 정치가의 민간

차원의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국의 관련된 정부 부처들(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재외동포재단 등)과 민간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정치력 향상이 선결과제이다. 현재 재미동포 차세대는 자체적인 모임을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점차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 예가 KAYPA(Korean American Young Professionals Association)라는 이민 2세대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주로 변호사, 의사, 정부와 관련된 전문직업인으로 이미 미국내 주류사회에 상당한 입지를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 조직이 활성화된다면 미국 내에서 재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을 홍보하며, 미국의 여론과 대한반도 정책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Korean American Alliance라는 1.5세, 2세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 있다. 그들은 거주국에의 정착과 주류사회참여,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미국 정치 선거 후보를 초청하여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민 2·3세들의 미국 주류사회로의 정계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국은 차세대지도자워크숍 등을 후원하고 이들의 모국 방문 및 연수를 지원하여 모국과의 연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4) 차세대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화와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재외동포 인적자원 풀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동포 차세대의 역량강화와 모국과의 연계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각 분야의 동포 차세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국과 네트워크 하여 이들의 활동영역을 광역화하고 국제화하는 한편 이들의 선진문화, 학문이 국내의 동일분야에 전수되고 교류되어 국내의 사회문화, 학문과 예술분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자협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와 같이 지역별 조직뿐만 아니라 전 미주를 망라하는 중앙조직을 데이터베

이스화하고 모국과 네트워크하는 일이 필요하다.

차세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간에 인적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청소년들과 재외동포 청소년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세계한민족청소년대회’와 같은 학술,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대회에서는 국내와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이 자신들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행사를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하는 ‘세계한상대회’의 일부로서 추가하여 개최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재외동포 차세대들에게 국내의 동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교류와 네트워크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방문을 용이하게 하면서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가 이들이 모국에서 단기 또는 중장기 영어교사로 일을 하거나 통역 또는 번역 등의 일을 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국내 청소년의 영어 교육에 일조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어 한인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 폐쇄적인 국적제도의 개선을 통한 차세대 인력의 국내 활용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6개월 내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고 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일정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우수인력을 유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중 거주국의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법적 제약이 재외동포 중 전문기술인력이 모국 방문과 취업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재외동포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군대 복무만이 아닌 다른 방식(예를 들어, 방위산업체, 공익근무, 영어 교

사, 정보교육사)으로도 모국에 기여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거나 또는 면제받은 동포에게는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인터넷 한민족공동체로서의 코리안 넷의 개선

인터넷을 통한 한민족전자공동체의 형성은 정치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피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한인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오프라인 상에서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국어, 한국 역사 및 민족문화 등을 교육할 수 있게 되어 동포 차세대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에서 개발한 코리안 넷(Korean.net)을 대폭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에 처해있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사이트를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하나의 정부기관이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면 다양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은 포털사이트로서 모든 재외동포 관련 사이트들을 링크시키고 각 개별 사이트들은 개인, 개별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재단은 포털사이트에 참여한 개별 사이트들을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각 사이트들이 재외동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법률과 전담기구 신설 및 확대

재외동포기본법 또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된 국외인적자

원 관련부서의 역할에 재외동포 차세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활동 전담기구인 청소년위원회에 재외동포 청소년 기구를 만들어서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을 글로벌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기구가 국내의 청소년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재외동포 청소년을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와 재외동포 청소년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2007). 재미한인 민족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3: 57-87.
- 김광웅(1996). 방법론 강의: 기초·원리·응용. 박영사.
- 김남희·강일규·윤인진·이기성·전형권(2005). 국외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개발원.
- 민병갑(1999). 한인이민부모의 유교적 자녀교육방법과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워크숍 발표논문집, pp. 24-41.
- 민병갑·김영옥(2007). 이민 사회의 재편(1992~현재).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재외동포사 총서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제3장.
- 배영(1999).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워크숍 발표논문집, pp. 6-23.
- 서정갑·이신행(1989). 재미한인사회의 규범의식-다원적인 사회이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논총, 20, 73-93.
- 윤인진(1996).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6호, 66-95.
- _____(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연구, 9호, 1-38.
- _____(2003). 캐나다 한인의 이민과 사회적응. 재외한인연구, 제13권 제1호, 133-166.
- _____(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_____(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3호, 191-243.
- Berry, J.(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pp. 223-239 in L.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Board on Children and Families Commission on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1995).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ssues for research and policy. *The Future of Children* 5 (2): 72-89.
- Chang, E. T. (ed.) (2003/4).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 Today?: Part I. Across Nations, Generations, and Identities. *Amerasia Journal*, 29(3).
- _____. 2004.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 Today?: Part II.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Amerasia Journal*, 30(1).
- Chung, R.(1999).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n Immigrant Family: Sources and Solutions.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워크숍 발표논문집, pp. 42-55.

- Chung, A.(2007). *Legacies of Struggle: Conflict and Cooperation in Korean American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nico, M. Y.(2004).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Fugita, S., and O'Brien, D.(1991). *Japanese American Ethnicity: The Persistence of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Hsia, J.(1988). *Asian Americans in Higher Education and at Work*.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urh, W. M.(1980). Towards a Korean-American Ethnicity: Some Theoretical Models. *Ethnic and Racial Studies*, 3(4): 444-464.
- Hurh, W. M., and Kim, K. C.(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dison,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Jacoby, T.(2004). *Reinventing the Melting Pot: The New Immigrants and What it Means to Be American*. Basic Books.
- Jensen, Lief, and Chitose, Y.(1996). Today's Second Generation: Evidence from the 1990 Census. in A. Portes.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Kao, Grace, and Tienda, M.(1995). Optimism and Achievement: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Immigrant Youth. *Social Science Quarterly*, 76, 1-19.
- Kibria, N.(2003). *Becoming Asian American: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 Identit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m, D. Y.(2001). *Immigrant Entrepreneurship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in New York*.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hesi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Kim, K. C., and Hurh, W. M.(1983). Korean Americans and the Success Image: a Critique. *Amerasia*, 10, 3-21.
- Kim, P. S. and Lewis, G. B.(1994). Asian Americans in the public service: success,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 285-290.
- Kim, R. Y.(2004). Second-Generation Korean Ameican Evangelicals: Ethnic, Multiethnic, or White Campus Ministries? *Sociology of Religion*, 65, 19-34.
- Lee, J., and Zhou, M.(eds.) (2004). *Asian American Youth: Culture, Identity, and Ethnicity*. Routledge.

- Min, P. G.(2002). *The Second Generation: Ethnic Identity Among Asian Americans*. Altamira Press.
- _____.(1998). *Changes and Conflicts :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Boston : Allyn and Bacon.
- Min, P. G., and Hong, J.(2002). Ethnic Attachment amo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in P. G. Min, *Second Generation: Ethnic Identity among Asian Americans*. Altamira Press, pp. 113-127.
- Mollenkopf, J., Kasinitz, P., and Waters, M.(1997).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in Metropolitan New York*. Proposal to the Russell Sage Foundation.
- Park, R.(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 Free Press.
- Phinney, J.(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Portes, A.(ed.) (1996).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 and Rumbaut, R. G.(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and Bach, R. L.(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and Schauffler, R.(1996). Language and the Second Generation: Bilingualism Yesterday and Today. in A. Portes.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Rumbaut, R.(1994).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 748-794.
- Rumbaut, R., and Portes, A.(2001).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mid, C.(2001). Educational Achievement, Language-Minority Students, and the New Second Gene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74, 71-87.
- Shavarini, M. K.(2004). *Educating Immigrants: Experiences of Second Generation Iranians*. Lfb Scholarly Pub Llc.
- Statistics Canada(2007). The Korean Community.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9-621-XIE/89-621-XIE2007014.htm>, date modified: 2007-08-28)
- Strauss, A. L.(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1992). *Civil Rights Issues Facing Asian Americans in the 1990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eber, M.(1992).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ng, M. G.(1982). The Cost of Being Chinese, Japanese, and Filipino in the United States 1960, 1970, and 1976.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 58-78.
- Yoon, I. -J.(2007). *Social and Economic Status Attainment of Korean Americans: Inter-generation and Inter-group Comparis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ple Immigrations: US Immigration in the Global Context.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Nov. 1-2.
- Yu, E. -Y., Choe, P., and Han, S. I.(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6(1), 71-107.
- Zeng, Z.(2004). *The Economic Assimilation of Asian Immigrants: A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Zhou, M.(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975-1008.
- Zhou, M., and Bankston III, C. L.(eds.) (1998). *Growing Up American: Vietnamese Children Adap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 Russell Sage Foundation.

부 록

북미(미국, 캐나다)의 한민족 청소년
생활실태연구조사 설문지

General Social Surve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ID							
----	--	--	--	--	--	--	--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s conducting a general social survey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and Korean identity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indings from the survey shall be used for developing government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survey will be statistically analyzed to understand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s a group, and therefore, all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sha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Your candid response to each ques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are currently a high school student or an undergraduate student, please participate in the survey. It will take approximately 20 minutes or les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valuable time and information, we will mail you a gift worth 15 US dollars if you participate in the survey. Please leave your email address and mailing address to receive the gift certificate.

September 2007

Principal Investigator: Professor In-Jin Yoon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Phone: 82-2-3290-2490

E-mail: yooinin@korea.ac.kr

Homepage: <http://yooinin.korea.ac.kr>

I. Personal Characteristics

- 150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① Professional (Lawyer, artist, professor, scholar, doctor, accountant, teacher etc)
- ② High-ranking executive (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officer and higher ranking military personnel)
- ③ Administrative support (or clerical) (Government employee, employee of private firms and organizations, low-ranking military personnel)
- ④ Technical (Superintendent, skilled technician)
- ⑤ Business (Self-employed worker, family business worker, peddler, street vendor, carpenter shop owner, taxi driver etc)
- ⑥ Sales (Wholesaler, retailer, insurance or real state dealer, sales man, clerk etc)
- ⑦ Service (Employee of restaurant/hotel/beauty shop etc)
- ⑧ Farmer, fisher
- ⑨ Production, Driver and manual(Factory worker, Low-skilled laborer etc)
- ⑩ Full-time housewife
- ⑪ Unemployed
- ⑫ Other(Please specify, _____)

II. Religion

1. What is your religion?
 _____① Protestant _____② Buddhist _____③ Catholic
 _____④ Confucianist _____⑤ Muslim _____⑥ Other
 _____⑦ No religion (Go to Question III-1 next page)

2. How often have you attended regular church or temple services in the past year?
 _____① A few times a week _____② Once a week
 _____③ Two or three times a month _____④ Once a month
 _____⑤ Several times a year _____⑥ Once a year
 _____⑦ Less than once a year _____⑧ Never

3. Do you call yourself a strong, or not a very strong follower of your religion?
 _____① Very Strong _____② Strong
 _____③ Somewhat strong _____④ Not strong

4. What is the racial or ethnic composition of your church or temple?
 _____① Predominantly Korean _____② Predominantly white
 _____③ Predominantly Asian _____④ Racially or ethnically mixed
 _____⑤ Other(Please specify, _____)

5. Do you attend Korean-language church service or English-language church service?

- ___① Korean-language service ___② English-language service
___③ Both Korean- and English-language service ___④ Other(Please specify,)

6. In your view, are religious identities (eg. Christian identity) and ethnic identities (eg. Korean identity) compatible or incompatible (in other words in harmony or disharmony)?

- ___① They are wholly compatible ___② They are partially compatible
___③ They are not compatible at all ___④ Don't know

7. In a case where religious identities and ethnic identities are not compatible, which identity is more important for you?

- ___① Religious identity ___② Ethnic identity
___③ Equally important ___④ Neither is important
___⑤ Don't know

III. Family Relations

1. Please indicate all family members who are living in your household (Include and those who are temporarily living somewhere elsewhere, eg, on holiday).

- ___① Father ___② Mother ___③ Brother
___④ Sister ___⑤ Grand father ___⑥ Grand mother
___⑦ Aunt ___⑧ Uncle ___⑨ Other

2. What is the size of your family? (Include yourself and those who are temporarily living elsewhere).

- ___① One ___② Two ___③ Three
___④ Four ___⑤ Five ___⑥ Six and more

3. How many brother(s) or sister(s) in your family?

- ___① One ___② Two ___③ Three
___④ Four ___⑤ Five ___⑥ Six and more

4. What is your birth order among your siblings?

- ___① First child ___② Second ___③ Third
___④ Fourth ___⑤ Fifth ___⑥ Sixth or later

5. What is the ethnicity of your parent?

_____ ① Father is Korean

_____ ② Mother is Korean

_____ ③ Both are Korean

_____ ④ Both are not Korean

6. Are your mother and/or father foreign-born or U.S.-born?

	Foreign-born	U.S.-born
Father	_____ ①	_____ ②
Mother	_____ ①	_____ ②

(If your parents are foreign-born)

7. When did your parent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Please write the year of immigration for father and mother. (ex. 1996)

Father:

Mother:

8.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r parents have attended?
Write the corresponding number in the brackets.

Mother () Father ()

_____ ① no education

_____ ② elementary school

_____ ③ middle school

_____ ④ high school

_____ ⑤ some college education

_____ ⑥ graduated from college

_____ ⑦ graduate school and more

_____ ⑧ other(Please specify)

9. What is the primary occupation of your parent?

Write the corresponding number in the brackets below. (If they have retired or deceased, report the previous occupation)

Mother () Father ()

- ① Professional (Lawyer, artist, professor, scholar, doctor, accountant, teacher etc)
- ② High-ranking executive (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officer and higher ranking military personnel)
- ③ Administrative support (or clerical) (Government employee, employee of private firms and organizations, low-ranking military personnel)
- ④ Technical (Superintendent, skilled technician)
- ⑤ Business (Self-employed worker, family business worker, peddler, street vendor, carpenter shop owner, taxi driver etc)
- ⑥ Sales (Wholesaler, retailer, insurance or real state dealer, sales man, clerk etc)
- ⑦ Service (Employee of restaurant/hotel/beauty shop etc)
- ⑧ Farmer, fisher
- ⑨ Production, Driver and manual(Factory worker, Low-skilled laborer etc)
- ⑩ Full-time housewife
- ⑪ Unemployed
- ⑫ Other(Please specify,)

10. Is your family income sufficient or insufficient for living?
 _____ ① Very insufficient _____ ② Somewhat insufficient
 _____ ③ Neither insufficient nor sufficient _____ ④ Somewhat sufficient
 _____ ⑤ Very sufficient
11. Compared with American families in general, would you say your family income is far below average,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or far above average?
 _____ ① Far below average _____ ② Below average
 _____ ③ Average _____ ④ Above average
 _____ ⑤ Far above average
12. To what degree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urrent life?
 _____ ① Very dissatisfied _____ ② Somewhat dissatisfied
 _____ ③ Neither dissatisfied nor satisfied _____ ④ Somewhat satisfied
 _____ ⑤ Very satisfied
- (If you were born in South Korea)
13. If you recall your family life in South Korea before you came to the United States, compared with South Korean families in general, would you say your family income was far below average,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or far above average?
 _____ ① Far below average _____ ② Below average
 _____ ③ Average _____ ④ Above average
 _____ ⑤ Far above average _____ ⑥ Don't know

IV. Attitudes toward and Relations with South Korea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1. Parent's socialization styles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talk to my parents in Korean.	1	2	3	4	5
2. Overall, my parents say good things about Korea.	1	2	3	4	5
3. My parents want me to study Korean.	1	2	3	4	5
4. My parents want me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5. My parents teach (or taught) us Korean.	1	2	3	4	5
6. My parents usually make some Korean food.	1	2	3	4	5
7. My parents want me to marry a Korean.	1	2	3	4	5

2. My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interested in Korean news.	1	2	3	4	5
2. I have plans to visit Korea in 2 or 3 years.	1	2	3	4	5
3. I have plans to study or get a training in Korea.	1	2	3	4	5
4. I would visit Korea if I had a chance.	1	2	3	4	5
5. I want to talk with fellow South Koreans of the same age.	1	2	3	4	5
6. I will choose a Korean as my spouse.	1	2	3	4	5
7. I want to get a job which is related to Korea.	1	2	3	4	5
8. I have more interests about Korea than my parents do.	1	2	3	4	5
9. I know much more about Korea than my parents do.	1	2	3	4	5
10 I woul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jobs and careers if I learned Korean.	1	2	3	4	5
11. I want to work in Korea.	1	2	3	4	5
12. I want to live in Korea.	1	2	3	4	5

3. Have you ever visited Korea?

- _____① Yes, (If yes, how many times? _____)
 _____② No

4. How often do you listen to Korean news?

- _____① Everyday
_____③ Once a week
_____⑤ Never
- _____② 2-3 times a week
_____④ Not frequently

(If you listen to Korean news)

5. How do you get Korean news?

- _____① TV
_____③ Internet
_____⑤ Friends or acquaintance
- _____② Radio
_____④ Newspaper, magazine
_____⑥ Others(Specify,)

6. Have you ever watched Korean drama or entertainment programs via TV, radio, or internet?

- _____ ① Frequently _____ ② Occasionally
_____ ③ Never _____ ④ Not able to watch because of no broadcast

(If you have ever watched Korean drama or entertainment programs)

7. How do you feel about those programs?

- _____① Very interesting _____② Somewhat interesting
_____③ So-so _____④ Not interesting at all

8. Please tell me how you feel about South Korea.

Please tick the number that measures your feeling in the good-bad, capable-incapable, active-inactive, intimate-not intimate dimensions.

1) South Korea is

Very Good	Somewhat Good	So and so	Somewhat Bad	Very Bad
5	4	3	2	1

2) South Korea is

Very Capable	Somewhat Capable	So and so	Somewhat Incapable	Very Incapable
5	4	3	2	1

3) South Korea is

Very Active	Somewhat Active	So and so	Somewhat Inactive	Very Inactive
5	4	3	2	1

4) South Korea is

Very Intimate	Somewhat Intimate	So and so	Somewhat Not intimate	Not Intimate at all
5	4	3	2	1

9. Please tell me how you feel about South Korean people.
Please tick the number that measures your feeling in the good-bad, capable-incapable, active-inactive, intimate-not intimate dimensions.

1)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Good	Somewhat Good	So and so	Somewhat Bad	Very Bad
5	4	3	2	1

2)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Capable	Somewhat Capable	So and so	Somewhat Incapable	Very Incapable
5	4	3	2	1

3)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Active	Somewhat Active	So and so	Somewhat Inactive	Very Inactive
5	4	3	2	1

4) South Korean people are

Very Intimate	Somewhat Intimate	So and so	Somewhat Not intimate	Not Intimate at all
5	4	3	2	1

V. Korean Culture and Korean Identity

Please indicate the degree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1.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 -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A Korean background is very helpful for me to live.	1	2	3	4	5
2. I observe Korean traditional holidays. (e.g. Korean New Year's Day, Korean Thanksgiving Day)	1	2	3	4	5
3. I know a great deal about Korean culture.	1	2	3	4	5
4.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Korean.	1	2	3	4	5
5. I can speak Korean.	1	2	3	4	5
6. I can read Korean.	1	2	3	4	5
7. I can write Korean.	1	2	3	4	5

2. Korean ethnic identity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 -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m proud of myself as a Korean.	1	2	3	4	5
2. I try to know the history of Korea, tradition, customs etc.	1	2	3	4	5
3. I actively join community or social groups that are mainly composed of Koreans (association, clubs, meeting with people who are from the same city etc).	1	2	3	4	5
4. I know of the Korean background very well.	1	2	3	4	5
5. I have pride as a member of Korea.	1	2	3	4	5
6. I have strong attachment to Korea.	1	2	3	4	5
7. I frequently talk about Korea to other people.	1	2	3	4	5

3. Networks with South Korea

	Strongly disagree	Somewhat disagree	So-so	Somewhat agree	Strongly agree
1. I actively participate in Korean organizations.	1	2	3	4	5
2. I contact with people or organizations in Korea	1	2	3	4	5
3. Korea gives enough information to overseas Koreans.	1	2	3	4	5
4. I want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terchange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5. I visit Korean web sites.	1	2	3	4	5
6. There is a need for internet web sites where we can talk with young Koreans.	1	2	3	4	5
7. I have a good impression of Korean students who have co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8. I got to have a good impression of Korea because of Korean students who have come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1	2	3	4	5
9. I know of the study-abroad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10. I know of the employment program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1	2	3	4	5

4. To what degree do you think your Korean ethnicity affect the following areas of everyday life?

Area of everyday life	Very Weakly	Somewhat weakly	So-so	Somewhat strongly	Very strongly
1. Choice of occupation	1	2	3	4	5
2. Choice of friends	1	2	3	4	5
3. Neighbor relations	1	2	3	4	5
4. Choice of spouse	1	2	3	4	5
5. Eating habits	1	2	3	4	5
6. Ways of thinking	1	2	3	4	5
7. Choice of residential area	1	2	3	4	5
8. Choice of major in college	1	2	3	4	5

5. How do you think about the race or ethnicity of your (future) spouse?
 _____① He or she must be Korean
 _____② I would prefer a Korean to a non-Korean
 _____③ It does not matter whether he or she is Korean
6. Regardless of your intention, how do you think you marry eventually?
 _____① Korean _____② Asian (e.g., Chinese, Japanese)
 _____③ White _____④ African American(Black)
 _____⑤ Hispanic _____⑥ Other
 _____⑦ Don't know
7. Which languages are used in your family when parents and children talk to each other?
 ① Both speak Korean ② Parents Korean and children English
 ③ Parents English and children Korean ④ Both speak English
 ⑤ Other
8. When you talk to your parents, what is your perceived level of difficulty in communication?
 __① No difficulty at all __② Some difficulty but not a big problem
 __③ Big problem in communication __④ There is no communication at all
9. How do you evaluate your ability to speak the following languages?
- | | English | Korean | Other |
|------------|---------|--------|-------|
| Very well | 4 | 4 | 4 |
| Well | 3 | 3 | 3 |
| Not well | 2 | 2 | 2 |
| Not at all | 1 | 1 | 1 |
10.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 12), how often did you speak Korean in the house?
 _____① Very frequently _____② Frequently
 _____③ Occasionally _____④ Rarely
 _____⑤ Not at all
11.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s 12), did you have Korean friends?
 _____① Yes _____② No
12. When you were young (before age 12), did you attend a Korean church?
 _____① Yes _____② No

13. If you have close friends with whom you can confide in on personal matters, how many such close friends (excluding relatives) do you have? Write the number: _____
14. Among such close friends, what are the percentages of Korean and non-Korean friends?
- ① Percentage of Korean friend(s) _____
 - ② Percentage of Asian friend(s) _____
 - ③ Percentage of white friend(s) _____
 - ④ Percentage of black or Hispanic friend(s) _____

VI. Attitudes toward Reunification of Korea

1. How will you feel if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reunified?
- | | |
|----------------------|--------------------|
| _____ ① Very unhappy | _____ ② Unhappy |
| _____ ③ So and so | _____ ④ Happy |
| _____ ⑤ Very happy | _____ ⑥ Don't know |
2. What is the level of your interest in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issues?
- | | |
|----------------------------|----------------------------|
| _____ ① No interest at all | _____ ② Low interest |
| _____ ③ High interest | _____ ④ Very high interest |
3. Which reunification process do you favor?
- | | |
|--|-------------------------------------|
| __ ① Immediate reunification | __ ② Gradual reunification |
| __ ③ Coexistence rather than reunification | __ ④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
| __ ⑤ Don't know | |
- (If you favor reunification)
4. Why do you think reunification is necessary? Choose the single most important reason.
- _____ ① Because historically Korea used to be one nation
 - _____ ② To reduce war possibility and to live peacefully
 - _____ ③ To reduce sufferings of separated families of South and North Korea
 - _____ ④ To make Korea a strong nation
 - _____ ⑤ Other

(If you think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5. Why do you think reunification is not desirable? Choose the single most important reason.

- ① Distant feelings toward North Korea
- ② Economic burden to South Koreans because of aid to North Korea
- ③ Social chaos
- ④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s better for national development
- ⑤ Reunification is not necessary if war threats are removed
- ⑥ Other

6. How prepared do you think South Korean society is prepared for reunification?

- | | |
|----------------------------|-----------------------------|
| _____ ① Very well prepared | _____ ② Somewhat prepared |
| _____ ③ Not well prepared | _____ ④ Not prepared at all |

VII. Policy Recommendations

1. What kind of policies or programs do you wish the Korean government or related organizations to implement for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hoose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 _____ ① monetary support for man-power development (e.g. school expenses)
- _____ ② textbooks or equipments for man-power development
- _____ ③ teachers for man-power development
- _____ ④ vocational education or job training in Korea
- _____ ⑤ exchange programs with young generation Koreans
- _____ ⑥ long-distance education program (e.g., web-based education)
- _____ ⑦ short-term visits to Korea
- _____ ⑧ Korean language training in Korea
- _____ ⑨ long-term or short-term employment support
- _____ ⑩ internship programs
- _____ ⑪ other (Please specify _____)

2. What kind of policies or programs do you wish the Korean government or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 implement in ord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Choose all needed policies and programs.

- _____ ① support job placement in South Korea
- _____ ② support entering a school of higher grade in South Korea
- _____ ③ support job placement in local branch firms of Korean corporations
- _____ ④ Other (Please specify _____)

3. For the interest of young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re there any of suggestions do you would like to make to the Korean government? (Answer on the back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Please write down your email address and mailing address where you can receive our gift. (Your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Name:

Email address:

Mailing addres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 · 장근영 · 김남정 · 박정배
-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 안전 · 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양계민
-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임희진
-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 · 연규철 · 이교봉
-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강홍렬 · 고원 · 김민 · 김은경 · 김지선 · 김현주 · 나의순 · 마경희 · 손승영 · 손유미 · 우명숙 · 이승현 · 임천순 · 전상진 · 주용국 · 진미석 · 채재은 · 최규종 · 최순종 · 최화영
-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 · 조혜영 · 장근영 · 이창호 · 고원 · 강홍렬
-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 · 김기현
-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 · 서덕희 · 이은하
-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 · 김경준 · 백혜정 · 강진구 · 김태희 · 송미경 · 이유미
-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 · 조혜영 · 이춘화 · 김경준 · 김현철 · 김기현 · 임희진 · 임지연 · 길은배 · 김민 · 유홍식 · 전명기
-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 · 김은정 · 백원근 · 허병두
-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 · 황진구
-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 · 송병국 · 오홍석
-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 · 장근영 · 김호순
-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 · 김승규 · 송순재
-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 · 김기현
-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김형주
-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 · 이경상
-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오해섭 · 이해연
-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 · 오성배 · 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 · 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 (1.23~24)
-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 (4.20)
-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 (5.12)
-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 (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2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10-9(93330)